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45호 HYUNBULNEWS.COM 2025년 9월 3일(음력 7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종책 연속성 필요해” 태고종 원장 연임 추진

중앙종회 ‘1회 4년 연임’ 개헌
종무원장회의서 개정안 공유해
참석 종무원장 만장일치 지지
단임제, 장기 사업 추진 어려움
오는 9월 25일 중앙종회서 논의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가 현재 4년 단임제인 태고종 총무원장의 임기를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종헌 개정을 추진한다. 단임제로 개헌이 이뤄진 후 14년만에 다시 임기 개헌이 추진되는 것이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8월 26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전국종무원장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에 제출할 종헌·종법 개정안과 하반기 종단 주요 행사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태고종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연임과 관련한 종헌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추진되는 개헌안은 총무원장의 임기를 현행 4년 단임제에서 ‘1회 한정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개정된 종헌은 즉시 준용되도록 했다.

태고종이 총무원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채택한 것은 2011년. 종단에 수십억 원의 부채를 안겼다는 혐의로 전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멸빈 징계를 받자 당시 중앙종회는 제106회 회의에서 총무원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개헌했다. 총무원장의 장기 집권과 전횡을 막겠다는 게 이유였다.

이후 4년 단임제는 총무원장의 권력을 분산하며 종단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화를 확보하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도 그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 대표적인 것이 장기적인 어젠다가 수반돼야 하는 종책과 종단 사업들의 부재다. 이 같은 사업들은 4년이라는 임기에 이루기에는 힘들고, 후임 원장의 종책으로 이어지지 않아 단절되기 일쑤였다.

특히 상진 스님이 제28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며 종단 위상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연임제로 전환이 종단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상진 스님이 추진 중인 여러 종책과 대내외 사업들이 연속·지속성을 가지려면 단임제로는 한계가 명확해서다. 입법부인 중앙종회가 직접 나서서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태고종 중앙종회 사무처는 “현행 4년 단임제는 2·3년차에 레임덕 등으로 주요 종책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정부·대사회·이웃종단 교류 심화와 지속성을 위해서도 4년 단임제보다는 1회 한정 4년 연임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현직 총무원장 준용에 대해서는 “2011년 개헌 때도 즉시 준용돼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인공 스님이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개정 형평성을 감안할 때 현 총무원장부터 개헌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은 “이번 총무원장 임기 개헌안은 수석부의장 법륜 스님을 비롯한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오늘(8월 26일) 열린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도 전원이 1회 한정 4년 연임제로의 개헌안을 찬성했다”고 종헌 개정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총무원장의 임기를 ‘1회 한정 4년 연임’으로 전환하는 종헌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는 종단 내부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정원 25명 중 16명이 참석해 개최한 이날 전국종무원장회의에서도 전국종무원장협의회장 지허 스님의 제안에 따라 참석 종무원장 전원이 만장일치로 개헌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전국종무원장회의에서 의견수렴과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 개헌 지지 결의를 거친 총무원장 임기 개헌안은 원로회의와 종정 스님의 승인을 거쳐 오는 9월 25일 열리는 중앙종회에 상정·논의될 예정이다. 종헌 개정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뤄진다.



총성 잦아든 뽀디봉, 아이들 미소 ‘활짝’ 지난 7월 24일 시작된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으로 닷새 만에 100여 명이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한국 재가불자 비영리단체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하 수레꾼)’이 16년 동안 후원해온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도 마찬가지였다. 분쟁 직후 주민의 80%가 마음을 졸이며 피난길에 올랐다. 7월 28일 휴전이 성립되며 총성이 잦아들자 뽀디봉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수레꾼이 설립한 학교로 돌아온 아이들의 웃음이 해맑다.
글=신중일 기자 · 사진=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오시환 대표 특별기고 12면〉

조계종 9월 중앙종회 ‘출가 장려’ 다룬다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9월 10일 봉은사서 개최
청년 출가 장려 등 논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가 제235회 임시회를 9월 10일부터 5일간 서울 봉은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3월 경북 산불과 6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로 종회가 잇따라 조기 폐회되면서 이월된 안건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의안 접수 기한은 9월 3일, 종책질의 접수 기한은 9월 5일까지다.

이번 임시회에서 주목할 부분은 출가 장려 관련 이월 법안이다.

청소년·은퇴출가 제도 개선

출가장려를위한특별위원회(이하 출가장려특위)가 제출한 ‘청소년출가·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자의 행자교육 면제와 단기출가자의 단기출가 기간을 행자교육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불교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출가 과정에 부담을 느끼고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층을 출가로 적극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현행 종법에 따르면 은퇴출가자는 사찰 승가대학 4년 과정을 이수하더라도 수계까지 1년의 공백이 발생한다. 때문에 사찰 승가대학을 졸업한 은퇴출가자에게 비구·비구니계 수계 자격을 부여해 현행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자는 의미다.

그간 출가장려특위는 “매년 동국대 불교대학에 일반 학생 50명이 입학한다. 그 가운데 출가로 이어지는 경우는 1~2명으로 극히 적다”며 “4년간 불교를 배우고 익힌 인재들을 출가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아왔다. 앞서 7월 29일에도 제5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 성안한 개정안이 9월 종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창주 인정 범위 확대

‘사찰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개정안의 골자는 쇠락하고 피폐한 공찰을 맡아 사격과 위상을 크게 높인 경우 해당 주지를 ‘중창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이하 종헌특위)는 “공찰 주지가 원력을 세워 사찰을 중창 수준으로 일신하고 발전시켰을 때 그 공로가 충분히 인정돼야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종헌특위에 따르면 그간 일부 주지 스님들은 쇠락한 공찰을 맡아 사격을 일신하고도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임기 중 사설 사암을 창건해 이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주지 교체 과정에서 사찰의 위상이 급격히 하락하는 문제도 발생해왔다. 이번 ‘사찰법 개정안’은 창건주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찰의 안정적 발전과 지역사회 위상을 도모하자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 밖에도 선거법, 산중총회법, 중앙종회법, 교무금납부법, 선학원 정상화 특별법, 총림법, 교육법 개정안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종단 안정 위한 공감 과정”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3월과 6월 종회가 국가 비상사태와 총무원 화재로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며 “화재 복구를 위한 비상 예산 승인은 물론 10건이 넘는 종법안이 쌓여 있다. 결산과 기본 업무 마무리를 위해 9월 종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회 내부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종단 안정을 위해 이번 종회를 통한 대중 공감과 공유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직능대표 보궐선거 10월 15일

9월 22~24일 후보자 등록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선원 분야 보궐선거가 10월 15일에 열린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 이하 중앙선관위)는 8월 28일 서울 룸비니 빌딩 5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20차 회의를 열고 선원 분야 직능직 1석에 대한 보궐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성웅 스님(총무원 총무부장 임명)의 사직에 따른 후임 선출이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9월 24일 오후 5시까지다.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으로, 선거법 제16조에 의거 피선거권 자격에 하자가 없으면 출마할 수 있다. 겸직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는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9월 21일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후보자 자격심사는 9월 30일에 열리며, 직능대표선출위원회 회의는 10월 15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개최된다.

김내영 기자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선 융합교육으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혁신적 상상력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육성합니다.
혁신과 상상이 즐거운 대학
경계를 허물고 함께 성장하는 대학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
2026학년도 수시모집 2025.09.10.(수) 10:00 ~ 09.12.(금) 17:00

‘비구니 호계위원’ 종법 개정, 다시 논의되나

초심호계위원에 비구니 2인 참여
비구니 스님 사건 한해서만 심리
2014년부터 논의 있었지만 ‘무산’
올 3월 법계위원 탄생 긍정 요소
정운 스님 “개정안 상정·논의 기대”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사진은 2014년 8월 열린 제199회 임시회에서 원로회의가 인준 부결한 종헌 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는 모습. 이날 종헌 개정안은 부결됐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2014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위원 참여를 위한 종헌·종법 개정안이 오는 9월 5일 열리는 제235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될지 주목된다.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은 8월 25일 중앙종회사무처에 초심호계위원에 비구니 스님 2인이 참여하는 내용의 종헌 개정안과 ‘호계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호계원은 종단 내 징계와 권한쟁의를 심의·판결하는 기구로, 현재 비구 스님들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구니 스님과 관련된 사건도 비구 스님들이 심리하면서 당사자의 상황을 내밀하게 살피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돼 비구니 스님이 호계위원으로 참여하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어 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판결의 신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간 호계위원회와 법규위원회 등 종단 기구에 비구니 스님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됐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비구니 스님의 참종권 확대는 물론 비구니 승가의 고유한 수행 특성과 역량을 종단 운영에 반영해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에서다.

이미 2014년 전국비구니회와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성명을 통해 “비구니 스님의 징계와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 비구니 승가의 의견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헌·종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이는 비구니 승가가 더욱 의욕을 갖고 종단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같은 해 6월 제198회 임시회에서는 비구니 스님의 법규위원, 초심호계위원 참여를 허용하는 ‘종헌’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7월 조계종 원로회에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돼 좌초됐고, 이어 열린 8월 제199회 임시회에서 ‘종헌’ 개정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됐지만 가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무산됐다.

개정 논의가 번번이 무산된 데는 교리적·정서적 배경이 존재한다. 특히 ‘율장에 의해 비구니가 비구의 잘잘못을 따지며 갈마 혹은 포살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높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비구니 호계위원이 비구 갈마에 포함되지 않고, 오직 비구니 스님의 사건에 한해서만 심리에 참여할 수 있어 율장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율장에서는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는 각각 자치적으로 운영됐고, 비구 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비구 승가, 비구니 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비구니 승가가 각각 독립적인 갈마를 통해 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승가의 운영 방법을 규정한 율장 ‘건도부’에는 “비구들이 비구니들을 위해 갈마를 해서는 안 된다. 비구니들 스스로가 비구니들을 위해 갈마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조계종단 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법계위원이 탄생한 것도 인식 변화의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올해 3월, 비구니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사에 비구니 법계위원 3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계법’이 개정됐고, 7월 본각·계호·광용 스님이 비구니 법계위원에 위촉된 바 있다. 비구니 승가의 참종권 확대 노력의 첫 제도적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구니 종회의원 정운 스님은 “그간 호계원에서는 비구니 스님과 관련된 사건을 비구 위원 스님들이 심리해 비구니 스님의 상황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최소한 비구니 사건에 한해서만이라도 문호를 개방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최근 비구니 종회의원들이 70명의 비구 종회의원 스님들을 찾아가 개정안 동의 서명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종회의원 스님들이 개정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조해 주셨다”며 개정안 상정과 논의에 기대를 나타냈다.

저고위, 진우 스님에 감사패 “저출산 극복 선도적 역할”

8월 25일,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나는 절로’ ‘선명상’ 긍정적 평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범종교 차원에서 저출생 극복 운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8월 25일 “진우 스님이 지난해 8월 민간 주도로 발족한 ‘저출생극복추진본부’ 공동대표로 그간 범사회적 저출생 대응의 구심적 역할을 했다”면서 감사패를 수여한 사실을 밝혔다.〈사진〉

이번 감사패는 진우 스님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이자 저출생극복추진본부 공동대표로서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저고위는 “진우 스님은 저출생극복추진본부 활동 외에도 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미혼 남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와 ‘선명상 대중화’ 등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평안과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결혼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한편 가족친화적 사회 문화가 조성되는 데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진우 스님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지난 4월 18~19일 하동 쌍계사에서 개최한 청춘남녀 만나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에 함께하며 커플 성사를 응원한 바 있다. 당시 진우 스님은 “남녀 관계는 공감이 먼저”라면서 “내가 중매쟁이”라고 농담을 던져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불교계는 초고령화 사회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외로움을 덜어주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인간관계 회복의 촉진자 역할을 이어가 달라”고 요청했다. 임은호 기자

성파 스님, 부실장들에 “본질과 진리 꿰뚫는 안목 가져야”

임명 후 종정 스님 예방
“한국불교 중흥에 최선”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운데)와 기념촬영을 하는 부실장 스님들. 사진 뒷줄 왼쪽부터 사회부장 진성 스님, 기획실장 묘장 스님, 총무부장 성웅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교육부장 유정 스님.

“겉으로 드러난 말과 형상, 소리에 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본질과 진리를 꿰뚫어야 한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8월 25일 양산 통도사 서운암을 찾은 총무원 부실장단에게 전한 당부의 말이다. 성파 스님은 “수좌는 시어무형(示語無形)이요, 형체 없는 형체를 보고, 청어무성(聽於無聲)이라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주라”고 법어를 전하며, 수행자이자 종단 소임자로서 지녀야 할 안목을 강조했다.

성파 스님은 “보이는 일에만 치우치면 금세 흔들리지만, 본질을 붙잡으면 종단은 흔들림이 없다. 부실장 스님들이야말로 종단 살림을 책임진 만큼, 눈에 보이는 행정 성과보다 근본을 지키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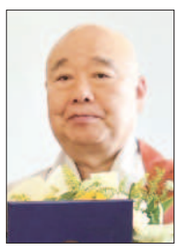
부실장단은 종정 스님을 예방한 데 이어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주지실에서 만났다. 현덕 스님은 “부실장 스님들이 맡은 소임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종단이 건강해지고, 한국불교의 위상도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방에는 총무부장 성웅 스님, 기획실장 묘장 스님, 교육부장 유정 스님, 문화부장 성원 스님, 사회부장 진성 스님이 함께했다.

부실장단은 “종단 발전과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화쟁위원장 정만·민추본부장 성행 스님

진우 스님, 8월 28일 임명장 수여
“갈등 해소 · 남북 공감 힘써달라”



정만 스님



성행 스님

조계종 화쟁위원장에 정만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에 성행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월 28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에서 정만 스님과 성행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신임 화쟁위원장 정만 스님에게 “국가적으로 국민이 평안하고 종단적으로도 종도들이 안정적으로 수행 정진하는 데 갈등이 없도록 화쟁위가 불교 화쟁 정신에 따라 평안을 위한 매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쟁위원장 정만 스님은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님의 기본 사상인 화쟁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우 스님은 민추본부장 성행 스님에게도 “종단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금강산 신계사 복원처럼 북한과 물꼬를 트고 경색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민추본에서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추본부장 성행 스님은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화해모드를 잘 참고하고 협조해 민간단체 중에서도 불교 단체가 남북평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지원 물품 학용품, 신발, 의료물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 지원 가능
후원 문의 02)2004-8214 2차 현지 방문 2026년 1월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관음종 "조세이탄광 유골 수습 환영"

8월 25일 유골 발견에 메시지 발표
새기는회, 잠수안전조치 중 발견
DNA 검사 진행…본격 송환 기대
관음종, 2017년부터 추모 동참해
"양국 미래로 나아갈 발판 되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모임은 8월 25일 오후 2시 9분경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당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다. 사진은 유골을 공개하는 모습. 사진 제공=관음종

일본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골로 추청되는 뼈가 발견됐다. 희생자 유골 일부가 수습됨에 따라 조선인 강제 징용 노동자의 유해가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8월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모임(공동대표 이노우에 료코, 이하 새기는회)은 8월 25일 오후 2시 9분경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당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다고 우리 종단에 알려 왔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 아픈 역사다. 1942년 2월 3일 해저탄광인 일본 우베 탄전의 조세이 탄광에 바닷물이 유입돼 침수 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노동자 4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일본은 전쟁 중이어서 보도 통제가 심해 사건은 일반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8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정부의 배상과 사과는 없고, 183명의 유해 발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의 위령사업을 위해 1991년 일본의 깨어있는 시민들이 '새기는회'를 결성했고, 2013년부터 유해 발굴과 송환을 위해 잠수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5차 잠수조사를 진행했고 갱도 입구를 발견하는 성과를 냈다. 이번 유골 발견도 새기는회가 내년 잠수조사를 위해 진행한 안전조치 작업 중 한국인 잠수사가 발견한 것이다.

새기는회에 따르면 본 갱도 안에서 희생자 4명의 유해가 발견됐고, 잠수사가 이 중 일부를 가지고 나왔다. 공개된 유골 중 가장 큰 것은 42cm로, 새기는회측은 이 유골들을 경찰에 인계해 DNA(유전자) 정밀 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해당 유골이 인골(人骨)로 확인될 경우 수몰 사고 발생 80여 년 만에 희생자 유해 수습과 한국 송환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2017년부터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추모위령재와 잠수조사 후원을 종책 사업으로 채택한 관음종은 총무원장 법명 스님 명의의 환영 메시지를 발표하고 유해 발굴 및 송환 사업에 한일 양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법명 스님은 이노우에 료코 새기는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경의를 표하고, 주일 히로시마 총영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후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조선인 노동자 136명, 일본인 노동자 47명의 유골이 모두 수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도와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한 촌로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국적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실천이 유골 발견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다. 마치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한일 양국은 서로 손을 맞잡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음종은 한국불교계에도 관심을 촉구했다. 법명 스님은 "부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셨듯, 우리 모두 그 가르침을 좇아 바른 일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희생자 전체의 유골 수습이라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불자와 시민들께서 더욱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후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조계종 제37회 포교대상 후보자 공모

계층·직능·문화체육·사회 분야 등
9월 26일까지 포교부 포교팀에 접수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포교 활동을 통해 불교와 종단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스님과 재가자 및 사찰과 단체를 치하하고자 제37회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자를 추천받는다.

조계종은 8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대상인 종정상과 총무원장상인 공로상 및 원력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공고했다.

추천 분야는 △계층포교(아동, 청소년, 대학생, 청장년, 노인 등) △직능포교(입법, 사법, 행정, 교육, 군, 경찰, 직장직능) △문화체육포교(미술, 성보, 건축,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문학, 학술, 연예, 스포츠) △사회포교(환경, 통일, 국제, 인권, 장애인, 복지, 여성, 노동, 다문화) △대중매체 포교(방송, 신문, 잡지, 출판, 인터넷, 모바일) △지역포교(신도교육 및 조직 운영, 지역사회 기여도)이며 각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스님과 재가자 및 사찰과 단체여야 한다.

후보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해야 하며, 대상의 경우 공적기간이 10년 이상이다. 공로상, 원력상 포함 포교대상 수상자는 5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할 수 없으며, 종단에서 수여하는 일반표창 수상자는 1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할 수 없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 또는 종단 소속 포교단체 대표자, 종단 등록 신도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후보자 포교활동 공적서와 이력서, 종단부여 자격증 또는 품수증 사본, 종단기관 재직증명서,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재가자의 경우 신도증 사본 및 당해 연도 교무금 납부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후보자 추천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포교부 포교팀 내원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상식은 12월 개최 예정이다. 02-2011-1891

접수=(031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9층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포교부 포교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나눔의집, 양로시설 휴지 신청…활용 방도 모색

〈休止〉

8월 22일,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
수장고 증설·35년사 발간 의결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거주 시설인 조계종 나눔의집(대표이사 세영 스님)이 양로시설 휴지(休止)를 신청키로 했다. 시설에 거주하던 할머니들의 건강악화와 별세 등으로 공실이 지속되면서 설치 기준 미충족으로 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역사적 공간의 존치 방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나눔의집은 8월 22일 광주 나눔의집 교육관에서 2025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는 대표이사 세영 스님을 비롯해 재적이사 11명 중 6명이 참석했다.〈사진〉

이날 이사진은 양로시설 운영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관할청에 휴지를 신청키로 했다.

나눔의집 측에 따르면 양로시설에 거주하던 강일출, 이옥선, 박옥선 할머니가 2024년 2~4월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현재까지 양로시설은 비어 있는 상태다. 이에 올해 2월 21일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기준' 미충족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받았고, 8월 13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상태다.

세영 스님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양로시설 없이 추모시설과 역사관을 운영하고 기념행사만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휴지



신청을 하고, 그 안에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구상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운영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활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역사적인 공간을 의도에 맞게 유지해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나눔의집은 9월 1일부터 운영재개 또는 폐지 시까지 양로시설 휴지를 신청하기로 했다. 휴지 기간은 1년이다. 휴지가 승인되면 우선 법인 운영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등 기념 추모사업 위주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사회는 나눔의집 수장고 증설(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할머니들의 유품 보관을 위한 수장고를 기숙사동에 100㎡(약 30평)를 증설하기로 의결했다. 나눔의집 35년사 사료집 발간도 논의했다. 나눔의집은 내부 2인, 외부 6인 이상으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를 조직해 2026년 1월부터 1년 8개월 간 35년사를 정리키로 했다. 나눔의집 거주 할머니들의 증언 활동과 생애 기록 자료를 시기별, 인물별로 나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역사관의 활동과 인권평화교육 등도 상세히 기술할 예정이다. 광주=임은호 기자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사노위, 이주노동자 산재 추모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가 8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청년 응오뚜이롱의 49재 및 산재로 떠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추모재를 봉행하고, 모든 영가들이 안전하고 차별 없는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길 발원했다.〈사진〉

사노위는 49재와 추모재를 계기로 정부에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 산업현장 안전 보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노예제도와 다름없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홍대서 히말라야까지 "싯다르타 순례길 복원"

저스트비 홍대선원, 개원 3주년
'히말라야 프로젝트' 원력 눈길
게스트하우스·160km 순례길 복원
준한 스님 "새로운 문화교류 실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홍대선원이 개원 3주년을 맞아 네팔 포카라에 명상 게스트하우스를 개원하고 싯다르타 순례길을 복원하는 '저스트비 히말라야'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사진은 저스트비 템플 히말라야에서 바라본 전경.

젊음의 거리 홍대 인근에 '글로벌 수행 놀이터'를 모토로 문을 연 저스트비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이 개원 3주년을 맞았다. 기존 불교 포교와는 다른 시도들로 어느새 '힙'한 불교의 모델이 된 홍대선원이 이번엔 네팔 히말라야에 최초 한국 사찰 건립 염원이 담긴 '저스트비 히말라야 프로젝트' 원력을 세워 또다시 '힙'한 불교 열풍을 예고하고 있다.

2022년 9월, 젊음의 활기가 넘쳐 흐르는 홍익대 인근에 게스트하우스 겸 한 열린선원으로 개원한 홍대선원은 종교를 떠나 한 해에만 40여 개국, 약 6000명이 다녀가는 다문화 도량이다. 홍대선원은 불교는 물론이고 모든 종교로부터 주목받으며 지난 3년간 기존 불교 포교와는 다른 층위의 시도들로 눈길을 끌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스트하우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행사는 물론이고 저스트비 3000배 클럽, 대학생 사찰 인턴쉽 '행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도심 포교당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내고 있는 것.

특히 출가했지만 아직 계를 받지 않은 행자와 인턴의 합성어 '행턴'은 한국불교계 최초의 '대학생 사찰 인턴쉽' 프로그램으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단기출가 모델로 화제를 모았다. 사찰 운영과 불사 기획에 참여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사찰공동체 안에서 수행과 신행을 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1기 행턴에는 국내외 대학생 6명이 참여했고 2기에는 30대 청년과 외국인도 포함됐다. 지난달까지 4기가 운영됐다.

3000배 클럽 역시 매달 스스로 3000배 수행을 약속하고 지켜냄으로써 자신을 믿는 '마음의 힘'을 키워냈다는 점에서 절 수행 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불교 포교의 새바람을 일으킨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3주년을 맞아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지인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 최초 한국 사찰을 건립하겠다는 '저스트비 히말라야 프로젝트'로 포교 원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곳은 히말라야 트래킹의 시작점과 같은 포카라. 준한 스님은 "출가한 지 10년 되던 해 차마고도를 거쳐 안나푸르나, 인도까지 18개월간 트래킹을 하던 중 네팔 포카라에 도착했을 때 감동을 잊지 못한다"면서 "대자연 속에서 깊은 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님이 탄생한 설산에 아직 우리나라 도량이 없어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준한 스님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안나푸르나에 '명상 게스트하우스'를 개원하고 순례길을 조성해야겠다는 원력을 세웠다"고 말했다. 불자들이 성지순례와 더불어 히말라야 등반을 위해 포카라를 찾았을 때 편히 머물며 수행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준한 스님의 설명이다.

'저스트비 히말라야 프로젝트'는 한국 불교 첫 도량과 함께 마을을 조성하고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에서 히말라야를 잇는 163km 옛 순례길을 복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그 시작이 될 도량인 저스트비 템플 히말라야는 현재 대략적인 모습을 드러내 9월 28일 미륵보살 점안식이, 11월 7일 약사여래불 점안 및 고불식이 봉행될 예정이다.

준한 스님은 "궁극적으로는 불교를 바탕으로 한국과 네팔의 새로운 문화교류 모델을 실현하고 지역민과 상생하며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한바탕 꿈속에 깨달음의 큰 궁전, 적멸보궁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불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스트비 홍대선원은 개원 3주년을 맞아 9월 6일 오후 3시부터 선원 내에서 기념파티를 개최한다. 선태극권과 핸드팬 체험을 시작으로 오후 10시까지 특별 공연, 케이크 커팅, 선물 추첨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선명상 사찰 11곳 추가…1시간 과정 등 운영

직장인 위한 기본·심화 선명상
5분·걷기·호흡 등 체험 다양해



사진='선명상' 홈페이지 캡쳐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명상문화 확산을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 운영 사찰·기관이 확대됐다. 조계종 미래본부(사무총장 일감 스님)는 최근 '선명상' 공식 홈페이지에 선명상 프로그램 운영 사찰·기관으로 선정된 11곳을 새롭게 공개했다. 이로써 올해 7월 선정된 31곳을 포함해 총 전국 42곳에서 선명상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사찰·기관은 고창 선운사와 경주 감산사, 서울 길상사, 서울 석불사, 충주 석종사, 봉화 축서사, 서울 홍대선원, 광주 정혜사,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용인 보덕 관음사, 세종 영평사다. 홈페이지에는 각 사찰의 소개와 프로그램 일정이 안내돼 있다.

미래본부는 앞선 8월 20일 서울 조계사 교육관에서 '선명상 프로그램 운영사찰(기관) 지도자 교육'을 열고, 새로 지정된 사찰의 지도법사와 재가실무자들에게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전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사찰은 지역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선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심 사찰에서는 직장인을 위해 점심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1시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5분 명상·차 한잔 명상·호흡 명상·걷기 명상으로 구성된 '기본 선명상'과 좌선과 화두를 체험하는 '심화 선명상'으로 구성됐다.

1시간 선명상 프로그램은 석불사, 감산사, 길상사, 보덕 관음사, 석종사, 선운사, 영평사, 정혜사,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선명상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익히고 싶은 이들을 위한 '선명상 입문 4주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감산사, 석불사, 보덕 관음사, 정혜사, 영평사에서 진행되며, '선명상이란 무엇인가' 등 기본 이해부터 올바른 선명상 자세, 호흡법, 일상 실천 방법, 선명상의 과학적 효능까지 익힐 수 있다.

단기간 집중적인 선명상 체험을 원하면 '입문 2박 3일 선명상'을 선택하면 된다. 석종사, 축서사, 한국문화연수원가 운영하며, 짧은 기간 동안 4주 과정에 준하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배운다.

김내영 기자

70돌 중앙신도회 "올 가을은 시민과 함께"

9월 20일 광화문서 선명상 페스타
9월 8일 나주서 제1회 골프대회
9월 27일 구미서 파크골프대회도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올가을 전국에서 국민통합과 행복을 기원하는 각양각색의 야단법석을 펼친다. 종단 주요 종책사업인 선명상 대중화를 비롯해 포교영역 확대와 교구 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로, 국민행복을 증진하고 한국불교 중흥에도 적극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중과 함께 하는 선명상 축제다. 9월 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선명상 페스타'**는 불자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즐기며 선명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다. 2013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행복바라미 사업을 개최해 온 중앙신도회는 이번 페스타를 통해 불자의 역할을 새롭게 다짐하고 한국 불교문화를 대중에게 알리는 선도적 역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선명상을 비롯해 대중적인 불교 콘텐츠와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자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교구 신도회 활성화와 국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법석도 마련된다.

먼저 조계종 총무원장배 골프대회가 최초로 열린다. 9월 8일 오후 1시부터 나주 중흥 골드레이크CC에서 **'제1회 총무원장배 전국 불자 자선 골프 대회'**가 개최된다.

조계종 포교부와 중앙신도회가 주최하고 제22교구본사 대흥사와 신도회가 주관하는 이번 골프대회는 각 교구본사 신도회의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교구 내 불자들의 결속력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대중 스포츠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파크골프 대회도 열린다.

'제1회 총무원장배 전국 불자 자선 파크골프 대회'는 9월 27일 오전 8시부터 구미 동락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된다. 제8교구본사 직지사와 신도회가 주관하며 4인 1팀 단일 종목으로 80개팀 32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중앙신도회는 이번 대회가 각 교구본사 신도회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교구별 불자 파크골프 동호회가 구성돼 불자들의 결속력과 소속감이 강화되는 계기로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포교영역을 확장하고 전국불자들의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8월 23일 구례 화엄사 사성암에서 개막한 **'2025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는 9월 20일까지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이어진다.

정원주 중앙신도회장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중앙신도회의 역할을 새롭게 다짐하며 불교문화를 알리는 한편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선운사·내소사, 동국대에 2000만원

8월 27일,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전북 출신 재학생 등 20명에 수여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와 교구 사찰인 내소사가 동국대에 장학기금 2000만원을 쾌척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스님)는 8월 27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115회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와 소속 말사인 부안 내소사(주지 재안 스님)가 총 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전북 지역 재학생과 공과대학 불교동아리 '공양미 300석' 회원 총 20명에게 수여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부처님 인연의 지중함을 강조했다. 돈관 스님은 "감사 편지를 읽어봤는데 한 학생이 '선운사·내소사 주지 스님 얼굴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인연인가요'라고 했는데 답은 '부처님 인연'이다"라며 "부처님과의 인연이 있기에 조계종립 동국대에 입학한 것이고, 공과대학 불교동아리에 입부해 선운사·내소사 장학생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부처님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라며 "동국인으로서, 청년불자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신행하는 인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제43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마음의 힘 키우기
인연과 화합하기
달라지는 '나'
주인된 삶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마음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나와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속
관법 수행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기 간 : 2025년 10월 11일(토)~11월 29일(토)
총 8주 매주(토) 오후 1:30~5:30
(1주 오리엔테이션은 오후 1시~6시)
장 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모집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hansi.org
수 강 료 : 20만원 (국민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문 의 : 031-470-3200/3196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학교법인 동국대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와 독도 일원에서 북한 출신 대학생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울릉도 · 독도 탐방'을 진행했다. 사진은 독도에서의 기념촬영 모습.

독도 간 탈북 청년불자들 '한반도 평화' 발원

동국대, 8월 23~25일 울릉도·독도 탐방

울릉도 · 독도=신중일 기자

"거룩하신 부처님! 하루속히 분단의 상처로 갈라진 남과 북이 서로 원망과 분노를 거두고 분별없는 자비의 실천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북한 출신 청년 대학생들의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위한 간절한 서원이 한반도 동쪽 끝 울릉도와 독도에 울려 퍼졌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울릉도와 독도 일원에서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울릉도·독도 탐방'을 개최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탐방에는 이사장 돈관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지정학 학교법인 사무처장을 비롯해 동국대 재학생을 포함한 16개 대학 북한 출신 학생 32명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탐방은 포항과 울릉도 여객선을 운항하는 조현덕 울릉크루즈(주) 대표이사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김영기 울릉크루즈투어 대표가 직접 동행해 모든 일정이 여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직접 마중 나온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1호 사찰인 포항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은 후원금을 전달하며 탈북 대학생들의 첫 울릉도·독도 나들이를 응원했다.

평화 바라는 탈북 대학생 서원들

8월 24일 새벽 울릉도 사동항으로 입도한 탈북 대학생들은 거북바위, 예림원, 나리분지 등 명소들을 탐방하며 울릉도의 자연환경을 만끽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산하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에서는 울릉도의 형성과 생태, 안타까운 역사를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일제의 남획으로 현재는 절멸종으로 분류되는 독도바다사자(일명 강치)에 대한 연구소 관계자의 설명에 학생들은 안타까움에 탄식이 절로 나왔다.

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수산업자 나카이 요시부로는 1904년 일본 정부로부터 독도바다사자 독점 어업권 허가를 받고 매년 5000여 마리를 남획했다. 남획된 독도바다사자는 식용 및 기름, 가죽 등으로 활용됐다. 1976년까지는 간간이 독도 인근에서 확인됐으나 이후에는 발견됐다는 보고가 없는 상황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현재도 일본 정부는 도쿄 영토 전시관에 독도에서 포획한 독도바다사자 박제본을 전시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홍보물로 활용 중"이라고 일본의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참가 대학생은 "북한에 있을 때에는 막연히 독도는 우리 땅으로만 인식했는데, 이번 탐방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다양한 식생과 문화를 알게 됐다. 독도바다사자 역사는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울릉도 추산 성불사를 참배한 대학생들은 호국약사여래불상 앞에서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위한 발원문을 봉독했다.

대학생들은 "한없이 넓고 청정한 바다 위에 우뚝 선 울릉도와 독도를 바라보며 여기 모인 불제자들은 남북이 하나로 어울려 풍요와 안락을 누리고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러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용맹정진을 다짐하고 있다"며 "바라옵건데 이 땅의 모든 생명이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지혜와 자비, 정진 속에서 살아가게 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했다.

삼대가 덕을 쌓아야 가는 '독도'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독도 탐방. 앞서 국문학자인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독도의 명칭 유래를 학생들에게 설명하며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독도를 한자로 '홀로 있는 섬(獨島)'이라고 쓰지만 한국 고어(古語)에서는 '돌'을 '독'으로 발음했다. 그래서 '돌무더기 섬'이라는 뜻의 '돌섬'에서 현재의 섬 명칭이 유래됐다"면서 "이후 일본인들이 독도를 음차해 '다케시마(竹島)'라고 했다. '다케'가 대나무(竹)를 말하는데 독도에는 대나무가 살 수 없는 환경이다. 명칭의 유래에서부터 독도가 우리의 영토였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윤서 씨가 학생들을 대표해 발원문을 봉독하고 있다.

탈북 대학생 16개교 32명 참가
광복 80주년 맞아 평화 기원해
'독도 수호' 남북 공통분모 확인
"원망 거두고 자비로 하나 되길"
9월 23일 탈북 대학생 동아리 창립

탈북민 계층 포교 '한 획' 기대



울릉도 · 독도해양연구기지를 견학하는 참가자들.



참가 대학생들이 돈관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독도로 가는 길은 쉽지 않다. 울릉도에서 쾌속선으로 1시간 40여 분을 가야 만날 수 있는 독도는 기상이 좋고 바다가 매우 잔잔해야 접안이 가능하다. 실제 독도에 입도할 수 있는 날은 1년에 40여 일. '독도 입도는 삼대가 덕을 쌓아야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행히 동국대 탐방단이 독도를 찾은 8월 24일은 입도하기에 최적의 기상이었다. 탐방단은 울릉도 사동항에서 1시간 40분을 달려 독도에 무사히 입도했다. 탐방단들은 독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독도와의 첫 만남을 기록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내년 건학 120주년과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북한 출신 학생들이 민족정신을 고양하고 정체성을 되새길 수 있도록 이번 탐방을 기획했다. 2년 전부터 준비했지만 여러 시절인연에 따라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동국대 재학생뿐 아니라 다른 대학 학생들도 참가해 부처님 법을 접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참가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다. 채윤서(동국대 대학원 재무회계 전공) 씨는 "탈북민으로서 갈 수 없는 곳이 북한이고, 북한에 있을 때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울릉도와 독도였다"면서 "불교와의 인연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와 보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한의 체제와 이념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이라며 "이런 공통점을 찾아간다면 한반도 평화와 화합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광(건국대 경영학과) 씨는 "교과서에서만 보던 독도에 발을 딛고 선 지금 이 순간이 감격스럽다. 이런 추억을 만들어 주신 동국대 관계자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불교가 지혜로운 종교인 것은 포용성에 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한다면 평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라며 "남한과 북한이 공동의 유산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불교'라고 생각한다. 불교를 통한 교류도 남북평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미영(명지전문대 뷰티매니지먼트학과) 씨도 "북한에서는 여행도 진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대한민국에 와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고 즐겁다"고 밝혔다.

"아직도 북에 있는 친구와 친척들 생각이 많이 난다"고 밝힌 그는 "오늘 같은 순간을 친구와 친척들도 경험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평화 원력, 전법으로 확장

동국대는 이 같은 평화 원력을 바탕으로 오는 9월 23일 북한 출신 대학생들만의 불교동아리를 창립한다. 창립식에서는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동화사 전 주지 능종 스님, 황경환 진양유조선 회장이 학생들에게 장학금 50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동국대의 북한 출신 대학생 불교동아리 창립은 현재까지 미비한 '탈북민 포교'에도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돈관 스님은 "단과대학 내 불교동아리가 있지만 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쉽게 녹아들지 못하는 부분이 컸다"면서 "북한 출신 대학생 불교동아리는 이들이 불교를 통해 대학과 우리 사회에 녹아들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총장은 "이번에는 북한 출신 대학생들만 탐방을 했는데,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정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런 탐방이 넓게 보면 부처님 법을 전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함께하는 팔관회, 명상걷기대회로 시작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9월 27일 북항친수공원서

시민 참여로 전통의례→현대축제
성악·스트릿댄서 무대 등 다채
팔관회 본행사 10월 25일~27일
"호국 · 통합 전통, 공동체 회복"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부산의 가을밤, 시민들이 함께 걷고 호흡하며 천년 전통 팔관회의 서막을 연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 범어사 주지)는 9월 27일 오후 6시 북항친수공원에서 '팔관회 명상걷기대회'를 개최한다. 걷기대회는 오는 10월 범어사에서 봉행되는 팔관회 본행사에 앞서 마련된 시민참여형 축제다.

팔관회는 고려 시대 국가가 주관한 대표 불교의식으로 팔재계 실천을 통한 인간성 회복, 국운융성을 기원하는 호국의례였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팔관회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문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명상걷기대회'를 개최한다.

팔관회가 호국과 사회통합의 가치로 이어지는 것처럼, 명상걷기대회로 개인의 성찰과 공동체의 회복을 이뤄내자는 뜻에서다.

팔관회는 현재 부산불교연합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의례로, 불교와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호국 생활문화 축제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걷기대회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식전공연과 전 참가자가 함께하는 명상, 북항 수변산책로 걷기, 어울림 한마당으로 꾸려진다. 테너 정필윤, 소프라노 박나래, 스트릿댄서(BAEKEUI) 등이 무대에 오르며 부산솔리스트앙상블과 범어사 어린이합창단의 합창도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안마의자와 TV, 공기청정기 등 1000만원 상당의 경품도 추첨을 통해 주어진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9월 27일 오후 6시 북항친수공원에서 '팔관회 명상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열린 팔관회 명상걷기대회 행사 모습.

팔관회 본행사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열린다. 선재동자 수계법회, 호국기원법회, 호국영령위령재와 팔관재계 수계법회, 팔관회 전통 의식 재현 등이 펼쳐진다.

선재동자 수계법회는 〈화엄경〉의 선재동자를 본받아 어린이들이 팔재계를 받고 청정한 삶을 서약하는 의식으로, 불교 인성교육의 의미를 담는다. 호국기원 법회는 나라와 시민의 안녕을 발원하는 자리로, 팔관회가 지닌 호국의 전통을 계승한다. 호국영령위령재와 팔관재계 수계법회는 순국선열을 추모하고 여덟 가지 계율을 다시 서약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정진을 다짐하는 핵심 의식이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는 "팔관회의 의미는 과거의 호국과 통합에서 오늘날 인간성 회복과 공동체 회복으로 확장됐다"며 "걷기와 명상으로 시작해 범어사 본행사로 이어지는 이번 팔관회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특별한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작도와 반야용선, 디지털로 되살아난 통도사 벽화

'눈으로 보고 손에 담다' 개막
10월 29일까지 통도사박물관서



특별 전시 '눈으로 보고 손에 담다'에서는 통도사 건축물 곳곳에 그려진 벽화를 디지털 영상으로 재현한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사진은 디지털 기술로 재현한 명부전 봉황도 벽화.

까치가 날아오르고 호랑이가 꼬리를 흔든다. 극락으로 향하는 용선은 파도를 가르며 힘차게 나아간다. 전각 벽에 숨겨져 있던 옛 그림들이 빛과 영상으로 되살아나 관람객 앞에서 살아 움직인다.

영축총림 통도사 벽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현한 특별 전시 '눈으로 보고 손에 담다'가 개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이번 전시를 8월 15일부터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열고 있다. 오는 10월 2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통도사 전각 곳곳에 그려진 벽화를 디지털 영상으로 재현해 관람객이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극락보전, 대웅전, 관음전, 명부전 등에 그려진 벽화는 불교 교리와 전설, 자연과 동물, 꽃과 나무까지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건물 구조상 가까이서 볼 수 없거나 조명이 부족해 세부 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통도사와 양산시는 이러한 관람 한계를 해소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통도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전시를 마련했다.

눈길을 끄는 대표작은 명부전 벽화 '호작도'와 극락보전 벽화 '반야용선'이다. 호작도는 액운을 막는 호랑이와 희소식을 전하는 까치를 함께 담아낸 민화로,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동물 캐릭터의 모티브로도 알려져 있다. 반야용선은 파도를 헤치며 극락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담아 불교적 구원관을 상징한다. 전시장에서는 이 두 벽화를 비롯한 30여 점의 작품이 영상 효과와 색감 복원으로 재탄생해 생동감 있게 소개된다.

참여형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관람객이 홍보나 설문 조사에 참여하면 통도사 건축물과 벽화 이미지를 담은 '렌티큘러 포토카드'를 받을 수 있다. 카드는 각도에 따라 전각 사진과 벽화 그림이 교차해 보이는 방식으로 제작돼 의미를 더한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진응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통도사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축제와 미디어아트가 더해져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의 매력을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국 학생들, 통도사서 사생실력 겨룬다

제4회 통도사 '사생실기대회'
8월 20일~9월 30일 접수
10월 18일, 경내 일원서 개최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생실기대회가 열린다. 제4회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영축문화축제 '전국 초·중·고 사생실기대회'는 오는 10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통도사 경내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참가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사생을 통해 창의성과 표현력을 겨루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는 대회 당일 현장에서 발표되며, 전국의 초·중·고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인원 제한은 없으며, 접수는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통도사 홈페이지(www.tongdosa.or.kr) 또는 (사)한국미술협회 양산지부 홈페이지(yangsanart.cafe24.com)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ysart@kakao.com)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 5명과 위촉 심사위원 3명이 참여해 주제 표현력, 구상·구도, 창의성,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입상자는 10월 24일 통도사와 양산미술협회 홈페이지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10월 29일 오전 10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성보박물관·부산대, 업무협약 체결

지역사회 발전 · 혁신 목표
시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과 국립부산대(총장 최재원)가 8월 27일 성보박물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혁신과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공동 사업에 나선다.〈사진〉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한다. 특히 지역 주민과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교문화·전통예술·명상과 인문학 연구를 연계해, 지역 인문문화 생태계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정오 스님은 "부산대와 협력으로 시민들이 인문학과 불교문화를 통한 성장의 기회를 넓히도록 돕고 싶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백중 회향 맞아 자비의 쌀 나눔

27개 복지기관 통해 4000kg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백중 회향을 맞아 8월 26일 경내 일원에서 '2025년 제4차 자비의 쌀 나누기'를 개최했다. 이날 범어사는 부산·양산 지역 27개 복지기관에 백미 총 4000kg을 전달했다.〈사진〉

이번 후원은 백중 회향의 공덕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달된 쌀은 각 기관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주지 정오 스님은 "백중 회향의 뜻을 지역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 기쁘며, 앞으로도 자비 실천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네팔 불교 성지순례 8박10일
출발일 : 2025년 10월 19일(일)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쉬라바스티-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310만원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6박8일
▶일 정 :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누와라엘리야-아훙갈라-콜롬보-인천
▶동참금 : 문의

관세음보살의 상주처
보타낙가산 +미륵도량 설두산 +상해 4박5일
▶일 정 : 인천-상해-보타낙가산-설두산-상해-인천
▶동참금 : 문의
중국 4대불산
-구화산+항주 4박5일
-오대산+북경 4박5일
-아미산+낙산대불 4박5일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중국 실크로드 6박7일
▶일 정 : 인천-서안-천수-무안-돈황-투루판-우루무치-서안-인천
★ 체크포인트 : 국내선(2회), 고속열차(1회) 포함★
▶동참금 : 문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포교 거점’ 수덕사 복합문화센터 상량

8월 22일 상량식 봉행
우송 스님 상량문 봉독
“수행 · 문화 거점 도량”
10월 20일 준공 예정

유재상 충청지사장


덕숭총림 수덕사는 오는 10월 복합문화센터 완공을 앞두고 8월 22일 상량식을 봉행했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오는 10월 복합문화센터 완공을 앞두고 8월 22일 상량식을 봉행했다.

상량식에는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주지 도신 스님, 전 주지 지운 스님, 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묵 스님(조계종 호계원장), 정범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초은 스님(템플스테이 지도법사), 향림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우송 스님은 상량문에서 복합문화센터인 ‘하마장(下馬莊)’에 대해 “하마장은 예로부터 중요한 전각에 들어서기 전, 말에서 내려 몸가짐을 가다듬고 경건히 임하는 곳”이라고 설명한 뒤 “하늘이 가깝고 산이 크다, 하마장에 말 내려 숨을 고른다”라는 게송을 통해 도량의 위엄과 불법의 청정을 설했다.

우송 스님은 상량문 낭독 후 이번 불사에 원력을 모은 대중과 시공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복합문화센터가 수행·문화·교육을 아우르는 새로운 도량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부대중은 상량문이 봉합된 종도리를 올리고 고정하며 도량의 안녕과 불사의 원만 성취를 기원했다.

주지 도신 스님은 “근역성보관과 미술관에 이어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수덕사는 법회·전시·교육·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종합적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

수덕사 복합문화센터는 경내 근역성보관 인근에 조성되고 있으며, 2024년 8월 26일 착공해 오는 10월 20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백양사, 장학금-팥빙수로 지역상생 실천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가 무더위에 지친 지역민에게 시원한 팥빙수를 나누고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 상생에 한발 더 다가섰다.

백양사는 8월 26일 장성 북부지역 유일한 중학교인 백암중학교(교장 박경아)를 찾아 장학금 200만원과 정성껏 만든 팥빙수 130인분을 선물했다.〈사진〉 이어 북이초등학교와 약수초등학교에도 각각 10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하며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했다.


8월 26일, 백암중 등에 장학금 400만원
학교-관공서 등에 팥빙수 500인분 나눔

또 인근 관공서와 기관에서 370인분의 팥빙수를 나누며 더위를 식히는 데 힘을 보탰다.

백암중학교 교장실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는 무공 스님을 비롯해 수좌 일수 스님, 성보박물관장 동참 스님, 총무국장 청마 스님과 박경아 교장이 함께했다.

이어진 팥빙수 나눔에는 백양사 스님과 백양사불교대학 학생, 신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현장에서 직접 팥빙수를 만들어 전달했다. 팥빙수에는 망고와 블루베리, 견과류, 시리얼 등 13가지 토핑이 풍성하게 얹어져 학생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무공 스님은 “백양사는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지역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다”며 “특히 백암중학교는 백양사가 있는 백암산 이름을 따 만든 학교이니 만큼, 올해부터 장학금 지원 등 지역을 위한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장성 관내 모든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장학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아 교장은 “함께하는 배움 공동체를 꾸려 나가는 게 우리 학교 목표”라며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백양사와 처음으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팥빙수를 받은 백암중 1학년 김태현 군은 “팥빙수가 생각보다 크고 맛있다”며 “뜻밖에 학교에서 간식을 먹게 돼 행복하다. 토핑이 많고 양이 풍부해 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라고 환하게 웃었다.

한편, 이날 백양사는 백암중학교와 북이·약수초등학교를 비롯해 백양사농협, 북이파출소, 북이면·북하면사무소, 예비군중대, 약수·사가우체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지역 기관에서 팥빙수 500인분을 전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괴태곶 봉수대-수도사지 개방·조사를”

8월 25일 해군2함대 사령부지서 현장 답사

적문 스님·주민 40명 참여
오는 10월 16일 학술대회



적문 스님 등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 40여 명은 평택 괴태곶 봉수대와 수도사지를 답사했다.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지 내의 괴태곶 봉수대와 수도사지 현장을 답사하고 조속한 유적지 개방과 조사를 촉구했다.

적문 스님(평택 수도사 주지)과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 서영일 한백문화유산연구원장 등 전문가들과 문형철 원효호암마을 이장 등 지역 주민 40여 명은 8월 25일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지 내의 괴태곶 봉수대와 수도사지를 답사했다.〈사진〉 이번 답사는 해군 제2함대 사령부의 협조와 허가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괴태곶 봉수대를 둘러본 후 과거 국내 최대 규모의 봉수대임에도 철조망 설치와 지형 변경으로 원래 모습이 훼손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한국석유공사 부지 안에 위치해 접근이 어려운 수도사지를 멀리서 바라보며 위치를 특정했다.

서영일 원장은 “오랫동안 수도사지를 특정하고 주변을 살펴본 결과 유적지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발굴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 또한 “봉수대와 수도사지가 제때 정비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군 시설과 개발 과정에서 원형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적문 스님은 “이번 답사를 통해 수도사지가 역사와 불교문화가 깃든 소중한 성지임을 확인했다”며 “오랜 세월 방치되며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라 이제는 시민과 함께 보존과 발굴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적이 정비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도사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사는 오는 10월 16일 학술대회를 열어 수도사지에 대한 역사적·학문적 검토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보존·정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선운사 불교문화공간 ‘빨간 목탁’ 오픈

편의시설 개보수…‘폴바셋 선운사점’도 오픈

조계종 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8월 22일 경내 편의시설을 새단장해 불교문화공간 카페 ‘빨간 목탁’〈사진〉을 오픈했다.

카페 ‘빨간 목탁’은 템플스테이관 앞 산책로 앞 편의시설을 전면 개보수한 공간으로 찻잔, 쟁반, 접시 등 다양한 생활도자기를 전시·판매하는 공간이다. 대표 상품인 ‘빨간 목탁’은 2022년 불교박람회 전통문화우수상품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특허까지 출원한 도자 목탁이다.

주지 경우 스님은 “기존의 편의시설이 불교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새롭게 정비해 불교문화공간으로 바꾸게 됐다” 며 “탐방객과 신도들이 편하게 들를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운사는 ‘빨간 목탁’을 사찰 신도와 참배객들이 차를 마시며 불교 공



예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복합 불교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찬원 선운사총신도회장은 “사찰을 상징하는 기념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운사에서 특허 받은 ‘빨간 목탁’을 비롯한 다양한 불교문화상품을 선보이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선운사와 도솔산을 찾은 사람들이 불교의 전통과 문화를 경험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운사는 8월 22일 일주문 앞 편의시설을 개보수해 카페 ‘폴바셋 고창 선운사점’을 오픈했다. ’폴바셋‘은 매일유업 자회사인 엠즈씨드가 운영하는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로, 사찰 경내지에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계일화불교영화제, 사성암서 개막

9월 20일까지 전국서 진행



2025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이하 국제불교영화제)가 8월 23일 구례 사성암(주지 우경 스님)에서 막을 올렸다.〈사진〉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주최하는 이번 영화제는 사성암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9월 20일까지 전국 사찰에서 열린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는 불교의 자비와 지혜가 전 인류의 삶에 고르게 피어나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사성암에서 열린 개막행사에서는 화엄사에서 준비한 비건 햄버거가 제공돼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어 가수 하림이 무대에 올라 노을이 물든 사성암을 배경으로 감미로운 공연을 펼쳐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성암 주지 우경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성암에서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의 첫 시작을 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영화제를 통해 좋은 추억과 기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첫 상영작으로는 영화 ‘총을 든 스님’이 관객에 선보였다. 관객들은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가 사찰의 풍광과 어울려 더 큰 울림을 주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열반 3주기 월탄 대종사 부도탑 제막

8월 27일 다례재 및 제막식



미룡당 월탄 대종사의 열반 3주기를 기리는 추모 다례재와 부도탑 제막식이 8월 27일 청주 용화사에서 봉행됐다.〈사진〉

법회에는 수덕사 전 방장 설정 스님, 명예원로의원 암도 스님, 법주사 조실 지명 스님,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 문도대표 성운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는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송으로 시작해 설정 스님의 상단 축원으로 이어졌다. 설정 스님은 “선망부모와 무량한 영령들이 모두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성불하기를 바란다” 며 “법계의 모든 중생이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와 복덕을 성취해 새로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서원한다”고 발원했다.

문도대표 성운 스님은 “앞으로 매년 음력 7월 초닷새를 기일로 정례다례재를 봉행해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기리겠다”고 인사했다.

부도탑 제막식은 속리산 법주사, 청주 용화사, 단양 대흥사에서 동시 봉행됐다. 비문은 법주사 조실 지명 스님이 집필했고, 글씨는 최병익 선생이 맡았다. 부도는 고 김옥수 명장과 정이권 선생이 조성했다. 대종사의 진영은 김진성 선생이 맡았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해인사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회향

8월 22일 대적광전 일원서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8월 22일 대적광전과 경내에서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지난 7월 5일 입재 후 이어온 49일간의 간절한 기도 정진이 이날 원만히 마무리됐다.

회향 법회는 염불원장 광해 스님을 비롯해 노전 유초 스님,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의 집전으로 상단예불과 시식, 봉송게, 소전 의식이 차례로 진행됐다.

주지 혜일 스님은 회향사에서 “49일 동안 정성껏 예수재를 모신 인연 공덕으로 성불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믿는다”며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선운사, 을사년 생전예수재 회향

8월 22일 대웅보전서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가 생전의 업장을 소멸하고 지계와 보시로써 스스로 내생의 복락을 추구하며 지난 7월 5일 입재한 49일간의 생전예수재 기도를 8월 22일 회향했다.〈사진〉

법회에는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대중스님들과 정찬원 선운사 총신도회장, 군산 동국사 신도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경우 스님은 “49일간의 기도를 통해 생전에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을 참회로 소멸하고 내생에 무량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울산 정관암, 어르신들에 음식 공양

8월 26일 백중 맞아 진행



울산 정관암(주지 대활 스님)은 8월 26일 백중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정관암은 8월 26일 울산 북구노인복지관(460명)과 남구노인복지관(280명)에서 총 8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사진〉

대활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며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불교의 무주상보시 실천”이라며 “종교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시대일수록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속에서 불교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여 쌍북리서 백제 사비기 사찰 확인

국립부여문화유산硏 · 부여군
부여 관북리 유구분포조사서
광배, 화불 추청 유구들 발견
일대 사비 핵심 지역 가능성↑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부여 쌍북리 일대에서 발굴한 불탄 기와와 소조상 조각들.

부여 쌍북리 일원에서 사찰 관련 유물들이 출토돼 일대에 사비기 사찰의 존재 가능성이 확인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소장 황인호, 이하 연구소)와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부여 쌍북리 일대에서 '부여 관북리유적 18차 유구분포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쌍북리가 관북리와 더불어 백제 사비기의 핵심 지역이었음을 보여 주는 성토층과 함께 사찰 관련 유물들이 확인돼 이 지역에 백제 사비기의 사찰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유구분포조사에서는 부소산 끝자락과 연접한 3-1구역(3만523㎡) 북쪽에서 풍화된 암반층 위에 인위적으로 약 1m 높이로 흙을 켜켜이 쌓은 성토층을 확인됐다. 당시 왕궁과 같이 중요 건물을 축조할 때 사용된 전형적인 백제의 수평성토(흙을 일정 높이로 고르게 쌓아 지표면을 평평히 만드는 방식) 판축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이 일대에 중요 건축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중요한 단서다. 부여에서 수평성토 기법이 적용된 사례는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조사지역 남쪽과 부여여자고등학교 동편에서는 불탄 기와 조각과 함께 부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형상화한 '광배', 불상의 몸이나 광배 등에 작게 표현된 부처인 '화불'과 옷자락 모양으로 추정되는 소조상 조각들이 다수 출토됐다. 연구소는 이를 바탕으로 "쌍북리 일대에 사비기 사찰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출토된 광배의 화염문(火焰文, 불꽃무늬) 테두리는 금으로 만든 안료(金泥, 금니)를 사용해 그렸으며, 불상 또는 보살상의 옷자락은 안료를 사용해 채색한 것이 확인됐다. 특히 삼국시대에 제작된 소조상에서 금니가 사용된 것은 처음 확인된 사례로 당시 쌍북리 일대의 소조상 제작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연구소는 "이번 조사 성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오는 2026년 5월까지 쌍북리 전역(10만9183㎡)에 대한 유구분포조사를 실시하고 유적 정비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조사 현황을 국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백제 사비기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월에는 국가유산 '산사'를 즐겨 볼까

국가유산진흥원, 9월 방문코스 '산사의 길'

가을로 접어드는 9월, 국가유산 '산사(山寺)'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과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이귀영)은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9월 국가유산 방문코스 '산사의 길'에서 '이달의 방문코스'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8월 27일 밝혔다.

'국가유산 방문코스'는 우리나라의 세계유산과 인류무형유산을 중심으로 10개의 길과 76개의 거점으로 구성돼 있다. 10개의 코스 중 방문하기 좋은 계절과 시기를 고려해 '이달의 방문코스'를 소개한다.

9월에는 가을 풍경 속 산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산사의 길'이 선정됐으며, 전국 9곳의 대표 산사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만날 수 있다. 거점 산사는 △공주 마곡사 △보은 법주사 △순천 선암사 △순천 송광사 △안동 봉정사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합천 해인사 △해남 대흥사가 선정됐으며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누리집(www.kh.or.kr/visit)에서 각 거점별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순천 선암사와 양산 통도사에서는 산사에 자유롭게 머물며 자신을 돌아보는 1박 2일 템플스테이 '산사에서 나를 찾다'가 열린다. 독서, 음악 감상, DIY 체험이 가능한 '방캠상점'도 함께 운영된다. 참가자는 방문 캠페인 누리집에서 60%~80% 할인된 가격으로 템플스테이를 예약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소지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 1만원이 증정된다.

'산사의 길'을 음성으로 소개하는 '국가유산 음성 안내(오디오 가이드)'도 제작된다. '뉴진 스님'으로 활동하는 개그맨 윤성호 씨의 재치 있는 해설로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을 직접 체험하고 보호하는 '국가유산 순찰대' 활동이 9월 한 달 동안 진행된다. 50팀이 선정된 순찰대는 '산사의 길' 거점 9곳을 순찰하며, 환경 정화 활동을 하고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참여 후기를 나누게 된다. 순찰대에게는 걷기 편한 신발 브랜드 '르무통'의 운동화와 국가유산 순찰 일지, 쓰레기 줍기 키트 등이 제공된다.



해인사 등 9곳, 거점 선정돼
템플스테이 등 프로그램 다채

세계적인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삼성 헬스'와 함께 9월 동안 '국가유산 걷기 챌린지' 이벤트도 진행된다. 앱 내 '투게더 챌린지'에서 걷기 미션을 완수하면, 갤럭시 워치와 K-헤리티지 S스토어 문화상품 등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쏘카'와 함께 '산사의 길' 거점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이용권 60% 할인 쿠폰을 제공하여, 방문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국가유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 산사 영상도 공개된다.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파비앙 코르비노, 피터 빈트가 순천 선암사와 송광사로 떠난 '산사의 길' 여행기는 9월 4일 '어썸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사찰 봉사 온 일본 여학생들 '대반야경' 발견 문화재 등록

일본여대 자원봉사자 그룹
도쿄 엔메이지서 고서 조사
잠들어 있던 '대반야경' 발굴
사찰 부흥 기원하며 經 조성
올 봄, 도쿄 유형문화재 등록

일본의 대학생 자원봉사자 그룹이 지역 사찰에 잠들어 있던 고서 600권을 조사한 결과, 지역 신행활동에서 사용되던 〈대반야경〉임을 밝혀냈다. 이 경전들은 올해 봄, 도쿄도의 유형문화재로 등록됐다.

봉사그룹을 지도한 후지이 마사코 일본여자대학 교수는 "대학생이 실제 문화재를 조사하고 문화재 등록에 이른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소식을 8월 20일 일본의 '윗 뉴스' 등이 특별보도했다.

경전이 소장된 사찰은 도쿄도 이타바시구에 소재한 엔메이지(延命寺). 약 400년 전에 건립된 진언종 사찰이다. 18세기 초부터 19세기 초까지 화재로 사찰이 쇠락하곤 했으나 그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힘으로 부흥에 성공했다.

지난 2022년 무렵 이타바시구 교육위원회는 엔메이지에 소장된 에도시대의 불화들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600권의 〈대반야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사찰문화재의 권위자인 후지이 교수에게 협력을 의뢰, 자원봉사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은 약 40명. 조사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진행됐다. 학생들은 600권의 경을 1권씩 조사해 각 권의 말미에 기입된 시주자의 이름, 거주지, 연도 등을 분석하고, 사진촬영 등을 통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 학생들은 경전의 훼손을 막기 위해 조사 중엔 반지 등의 액세서리류를 금지하고 작업자 간의 소통을 위한 자체적인 규칙을 만드는 등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연구활동에 적용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대반야경〉은 약 170년 전, 절의 부흥을 바란 지역 주민들의 발원으로 엔메이지에 봉헌된 것으로 밝혀졌다. 18세기 교토에서 만들어진 황벽판 대장경에서 인경된 목판 인쇄본으로 당시 일본 각지의 사찰에 보급된 판본 중의 하나다. 그러나 엔메이지 소장본은 각 권의 말미에 시주자들에 관한 정보가 묵서로 쓰여져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경전을 시주한 이들은 대부분 엔메이지 부근에 거주했던 주민들로 밝혀졌다. 조사에 참여한 일본여자대학 학생 하마구치 카호 씨는 "시주자의 거주지 중에는 현재도 남아 있는 지명도 있어, 조사 중에 '내가 아는 지역이다'라는 탄성이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시주자 가운데는 무사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농민이었다. 또 경전이 보관된 상자는 장인이 손수 만든 고급품으로 당시 서민의 다수였던 농민이 사찰의 부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후지이 교수는 "에도시대 지역 불교신앙의 모습을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은 귀중한 성과"라며 "특히 학부생들이 실제 사료를 조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기회인지 알고 진지하게 봉사에 임해 준 것이 이번 성과에 연결됐다"고 평가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사찰 고서 조사에 참여한 일본여자대학의 학생들. 사진 출처=윗뉴스



성파 대종사가 펼치는 '선예'의 극치

〈禪藝〉



성파 대종사는 오는 9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 청주에서 열리는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에 참여해 특별전 '성파 선예전-명명백백(明明白白)'을 대중에게 선보인다. 사진은 성파 스님이 길이 100m 대작인 '명명백백'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 제공=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제14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성파 대종사 선예전 '명명백백'
공간 감싼 길이 100m 한지작품
'본래면목 마주하라' 화두 전해
특유의 옻 예술 작품도 선봬
9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종단의 신성이자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의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 권위의 정신적 지도자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예, 민화, 도자 등 다양한 장르에서 독창적 작품세계를 보여 온 예술가이기도 하다.

성파 스님이 펼치는 예술세계는 선(禪)을 바탕으로 한다. 그렇기에 세간에서는 스님의 작품을 선 수행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예술, '선예(禪藝)'라고 말한다. 성파 스님이 펼쳐낸 선예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스님은 오는 9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 청주에서 열리는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에 참여해 특별전 '성파 선예전-명명백백(明明白白)'을 대중에게 선보인다.

전시 주제이자 대표 작품명인 '명명백백'은 일체의 꾸밈없이 순수한 본질 그 자체를 추구하는 수행자적 선언이다.

전시 공간 전체를 폭 3m, 길이 100m에 이르는 순백의 한지 한 점으로 감싸는 작품 '명명백백'은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과 다르지 않다'는 '극소동대(極小同大)'의 통찰을 담아내고 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느다란 섬유질 가닥들의 조합이자, 동시에 하나의 완결된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전체 전시 공간의 모습.

강재영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예술감독은 "미분과 적분의 상호 작용으로 미세한 요소가 전체를 이루고, 전체가 다시 미세한 요소로 환원된다는 수학적 사고와도 통한다"며 "한지 하나에 철학과 종교, 공예와 예술이 들어 있다"고 극찬했다.

성파 스님의 선예는 '재료에 대한 연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스님은 전통 한지 제작부터 안료와 염료의 재배 및 가공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물감과 바탕이 되는 재료들을 직접 다뤘다. 특히 '옻'이라는 물성을 활용한 스님의 작품은 회화, 도자, 섬유, 조각 등에서 독자적인 예술 장르를 만들어냈다. 이번 전시에서도 스님만의 옻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실제 한지로 둘러진 전시 공간 내에는 옻으로 변화하는 색들과 별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작품 '별들의 향연'은 칠흑 같은 옻칠 속에 자개 가루가 은은히 반짝이며 밤하늘의 별빛과 이를 담아내는 우주를 연상시킨다.

작품 '공에서 색으로'는 한지 위에 옻칠 연작 시리즈로 순백 위에 변화의 색조가 펼쳐진다. 순백의 한지 위에서 나오는 변화의 색은 공(空)에서 색(色)으로, 무(無)에서 유(有)로 이어지는 순환의 흐름을 품고 있다.

강 예술감독은 "'명명백백' 전은 침묵 속의 명료함을 담아내고 있다. 근본으로 돌아가 자기를 비우라는 의미다. 물병에 물을 비워야 채울 수 있듯이 맑고 깨끗한 본성 그 자체를 발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면서 "성파 스님의 작품은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이고, 사물의 핵심을 꿰뚫는, 승(僧)과 속(俗)을 넘어선 선예의 극한을 보여 준다"고 상찬했다. 이어 "크고 깊은 통도사의 품과 같은 '성파선예(性坡禪藝)'의 맑고 청아한 세계를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권선했다.

한편, 올해로 14회를 맞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세상 짓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미술-디자인-건축을 아우르고, 인간-자연-사물을 연결하며, 집단의 문화를 표현하는 공동체와 함께 고민하는 공예의 새로운 정체성과 가능성을 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청주시 문화제조창 일원에서 열리며 성파 스님의 전시는 동부창고 6동(청주시 청원구 덕벌로 30, 내덕동)에서 진행된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⑧ 처염상정

오염된 세상에서 맑게 살아가기

處 染 常 淨

한여름 연못 위에 핀 연꽃은 은은한 향기와 함께 청아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불자들에게 연꽃만큼 사랑받는 꽃도 드물다. 대승불교의 정수인 〈법화경〉의 본래 이름은 〈묘법연화경〉으로, 깊고 미묘한 깨달음의 법을 연꽃에 비유했다.

연꽃은 또한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정토를 상징한다. 진흙과 탁류 속에서도 꽃잎은 조금도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단정한 빛을 발한다는 점에서 불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중국 남송 시대 이후 정토신앙이 퍼지면서, 불자들은 백련사(白蓮社)를 세우고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원하며 염불 수행을 이어갔다. 고려 시대에는 요세 스님이 강진 만덕사에서 승속이 함께 백련결사를 맺어 참회와 계율, 염불 수행에 정진했다. 오늘날에도 '연화사', '백련사' 같은 절 이름이 많고, 법당의 좌대와 문살에도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다. 연꽃은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일깨우는 상징이었던 셈이다.

연꽃은 불교뿐 아니라 유학에서도 귀하게 여겨졌다. 북송의 유학자 주돈이는 〈애련설(愛蓮說)〉에서 연꽃을 군자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다.

"연꽃은 진흙에서 나왔으나 더럽혀지지 않고, 맑은 물에 씻겨도 요염하지 않으며, 속은 비고 밖은 곧으며, 덩굴지지 않고 가지 치지도 않는다. 향기는 멀수록 맑고, 그 모습은 우뚝하여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어도 함부로 다루거나 다룰 수 없다."

이 구절에서 비롯된 말이 바로 '향원익청(香遠益淸)', 멀리 퍼질수록 더욱 맑아지는 향기라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이와 짝을 이루는 말로 '처염상정(處染常淨)'을 전한다. 오염된 곳에 있어도 늘 맑음을 지닌다는 뜻이다. 불자들은 신중단 예불에서 이렇게 발원한다.

"처세간 여허공 여련화 불착수 심청정(處世間 如虛空 如蓮花 不着水 心淸淨)"

"내가 비록 오염된 세상에 살아가도 허공과 연꽃처럼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고, 마음이 청정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번뇌와 시비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정직을 잃지 않는 사람, 다툼 한가운데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권세와 이익 앞에서도 초연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곧 '처염상정'의 삶을 사는 이다.

무심과 청정의 삶을 살아가는 이는 연꽃처럼 고결하다. 오염된 세상 속에서 맑음을 지니면, 그 삶 또한 멀리 퍼져 더욱 맑고 향기롭게 빛나리라. 처염상정하면 향원익청하리라.

〈화순 불암사 주지〉

거장 박범훈 소리 인생 60년을 기리다

9월 11일 국립국악원 예악당
'소리연 60 도반' 특별공연
한중일 음악회 韓대표 참석도

한국음악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의 음악 인생 60년을 기념하는 공연이 열린다.

오는 9월 11일 오후 7시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리는 특별공연 '박범훈의 소리연 도반'은 오늘날 한국 음악계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 원장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 마련한 뜻깊은 헌정 무대이다.

공연 프로그램은 박 원장의 60년 음악 세계를 망라하는 대표작들로 꾸며진다. 박범훈류 피리산조보존회가 선보이는 산조 연주를 시작으로, 국악의 대중화를 이끈 기념비적인 작품인 사물놀이를 위한 관현악 '신모듬'을 김덕수패 사물놀이의 협연으로 만날 수 있다. 또한 한일 음악 교류의 상징인 가야금 명인 문양숙과 일본 샤쿠하치 연주자 소가와의 이중주 무대, 아시아의 화합을 노래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뱃노래' 등에서는 그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다.

공연의 대미에서는 박 원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그의 오랜 도반인 명인 최경만과 함께 피리협주곡 '창부타령'을 협연하며 60년 소리 인생의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연을 준비한 제자들은 "선생님과 함께 웃고 울었던 지난 세월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국악의 현재를 확인하고 더 밝은 미래를 그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 원장은 8월 30일 중국 마카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한중일 교류음악회 '동방지광(東方之光)'에 한국 대표 작곡가로 참여해 교향 모음곡 '푸살 천도(薦度)'를 선보였다.

신중일 · 김내영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7~9/2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선명상 길라잡이	미래본부	조계종출판사
2	인과경	지묵	우리출판사
3	화엄경 약찬게(작은해설)	용학	담앤북스
4	초역 부처의 말	코이케 류노스케	포레스트북스
5	독송용 우리말 법화경	혜조	운주사
6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108 필사 명상	법상	조계종출판사
7	반야심경	오쇼 라즈니쉬	섬앤섬
8	초역 금강경(부처님의 말 아주 쉽게 풀어보다)	정사장(정정철)	굿모닝미디어
9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원영	불광출판사
10	불교 행운상징 컬러링 북	박혜원	담앤북스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붓다의 호흡 명상:빠띠삼비다막가 호흡관	김근중 엮음	운주사
3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4	사성제: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붓다의 수행과 깨달음 그 시작과 완성)	일묵 지음	불광출판사
5	불멸(3)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이각	지혜의눈
6	어싱: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7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8	한글아함경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9	뜻대로 안돼도 괜찮아(대원불교문화총서9)	한상희/용정운 그림	운주사
10	붓다의 가르침:라훌라스님의 현대적 사고로 쓰인 불교해설서	월폴라 라훌라 (Walpola Rahula)	맑은소리맑은나라

역대 조사가 보인 전등의 역사

〈傳燈〉



역대법보기 강설

학산 대원 대종사 지음 / 불광출판사 / 6만원

당나라 때 편찬…돈황석굴서 사본 발견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어진 전법의 여정
신라 출신 당나라 무상 선사 위상 조명
2년간 학림사서 강설…생생한 현장감
"무한대한 진리의 마음 놓치지 말라"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는 〈역대법보기 강설〉에서 부처님과 역대 조사로부터 이어진 정법의 원류와 법맥을 전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법문을 듣는 언하(言下)에 바로 척 깨달으면 동시에 일체중생의 모든 잡된 생각이 일시에 사라진다. 그것이 무념(無念)·무심(無心)·무억(無憶)이다." –'역대법보기 강설을 마치며' 중에서

해인총림 10대 방장이자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승인 학산 대원 대종사가 역대 조사들이 보인 불퇴전의 구법과 전법의 여정을 소개한 책 〈역대법보기 강설〉을 출간했다.

불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역대법보기(曆代法寶記)〉는 20세기 초 돈황석굴에서 발견된 선종 초기의 문헌이다. 원본은 대영박물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각 한 부씩 소장되어 있다.

당나라 대력 연간(766~799)에 보당사(保唐寺)의 무주(無住) 선사 문하에서 편찬됐으며 저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제목인 '역대(曆代)'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대대로 이어진 전등(傳燈)의 역사를, '법보기(法寶記)'는 여러 조사에서 무주 선사에 이르는 법맥과 선법을 기록한 것을 뜻한다.

〈역대법보기〉는 석존(釋尊)에서 혜능(慧能)까지 33조사와 지선(智詵), 처적(處寂), 무상(無相), 무주(無住)로 이어지는 전등의 역사를 다룬다. 육조 혜능 이후 남악 회양-마조 도일로 이어지는 계통과는 다른 독자적인 법맥을 보여 줌으로써 선맥의 다양성과 깊이를 조명한다.

특히 선종의 전통 계보 밖에 있어 주목받지 못한 신라 출신의 당나라 승려 정중무상(淨衆無相) 선사의 위상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또 전기(傳記) 형식으로 조사들의 구법과 전법의 여정을 짧고 명료하게 서술하는 한편, 스승과 제자의 직전(直傳) 구조를 강조해 선종 초기의 생동하는 수행 풍토를 보여 준다.

〈역대법보기 강설〉은 대원 스님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주 토요일 공주 학림사 설법전에서 설한 법문을 정리한 것이다.

책에는 〈역대법보기〉 전문과 우리말 번역, 대원 스님의 강설을 차례로 담았다. 스님의 구어(口語)를 최대한 살려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진다. 본문 내용 중 필요한 부분에는 주석을 달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서역 조사들의 계보만을 밝힌 〈역대법보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덕전등록〉 중 1조 마하가섭부터 29조 혜가까지를 발췌해 실었다.

학림사 오등선원은 발간사에서 "이 책은 부처님과 역대 조사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정법의 원류와 법맥을 이 시대 정법안장의 계승자이신 학산 대원 대종사님의 생생한 법음으로 펼치신 귀한 가르침"이라며 "최상승의 선을 통해 중생의 번뇌망상을 단박에 끊고 본래의 불심을 회복하도록 이끄시는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사부대중의 간절한 서원에 따라 법어집을 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8월 23일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 대적광전에서 〈역대법보기 강설〉 발간 봉정식이 봉행됐다. 대원 스님은 봉정식에서 "무한대(無限大)한 진리의 마음, 광명의 마음, 대자비의 마음, 대지혜의 마음, 대만족의 마음, 대행복의 마음, 이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법문했다.

봉정식에 참석한 최원철 공주시장은 "법어집이 혼탁한 사회에 지혜와 가르침으로 다가와 모든 사회가 화합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축원드린다"고 인사했다.

▲학산 대원 대종사는?

1956년 고암 스님을 은사로 상주 남장사에서 출가 득도했다. 동산 스님을 계사로 1958년 사미계를, 1962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86년 계룡산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울 때까지 제방 선원에서 효봉, 동산, 고암, 경봉, 전강, 향곡, 성철, 구산, 월산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 회상에서 정진했다. 1995년 오등선원을 개원하고 조실로 추대됐다. 2002년에는 일반 대중을 위한 오등시민선원을 개원했다. 2014년 대종사 법계를 품서했으며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수석대표, 조계종 원로의원, 종정 자문위원,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고암문도회 문장 등을 역임했다. 2022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에 선출됐고 2024년 해인총림 제10대 방장에 추대됐다. 법어집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진흙 속에서 달이 뜨네〉와 강설집 〈무구자 도인 주해 반야심경〉, 〈대주선사어록 강설〉, 〈금강경오가해 강설〉, 〈조주록 강설〉을 펴냈다.

새로 나온 책

석우 스님이 푼 공안 101칙



팽금록 무쇠를 삶다

석우 스님 지음
비움과소통
1만9800원

〈팽금록〉은 〈벽암록〉과 〈종용록〉에 등장하는 화두 공안과 한국 선사들의 문답 중 101칙을 골라 석우 스님(무불선원 시자)의 체험과 안목으로 풀이한 간화선 지침서다.

스님은 "〈벽암록〉과 〈종용록〉은 누구든 선문(禪門)의 기승전결을 알 수 있는 안내서이지만, 간혹 설명이 장황해 오늘날에는 번다하게 느낄 수 있다"며 "책에서는 주요 구절을 선별 인용하되 번다함을 삭제하고 간략하게 해 조사의 의지를 파악하게 했다"고 밝혔다.

석우 스님은 1973년 해인사로 출가해 77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했다. 현재 무불선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나를 완성하는 다섯 가지 깨어남



빅 홀니스

켄 윌버 지음
추미란 옮김
판미동
2만7000원

동서양 사상을 아우르는 '통합이론'을 창시한 미국의 철학자 켄 윌버는 이 책에서 일상과 인간관계, 내면의 성찰, 사회적 책임까지 연결하는 '통합적 영성'을 제시한다.

그는 영적 성장과 삶의 변화를 위한 다섯 가지 과정을 깨어남, 성장, 정화, 열림, 드러냄으로 설명한다. 이 다섯 가지 '홀니스(전체성)'는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지만, 이들이 조화를 이룰 때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빅 홀니스'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성해영 교수(서울대 종교학과)는 "미래에 펼쳐질 우주적 드라마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한다"고 밝혔다.

편견과 차별이 단단한 사유가 될 때



많아지는 것보다 깊어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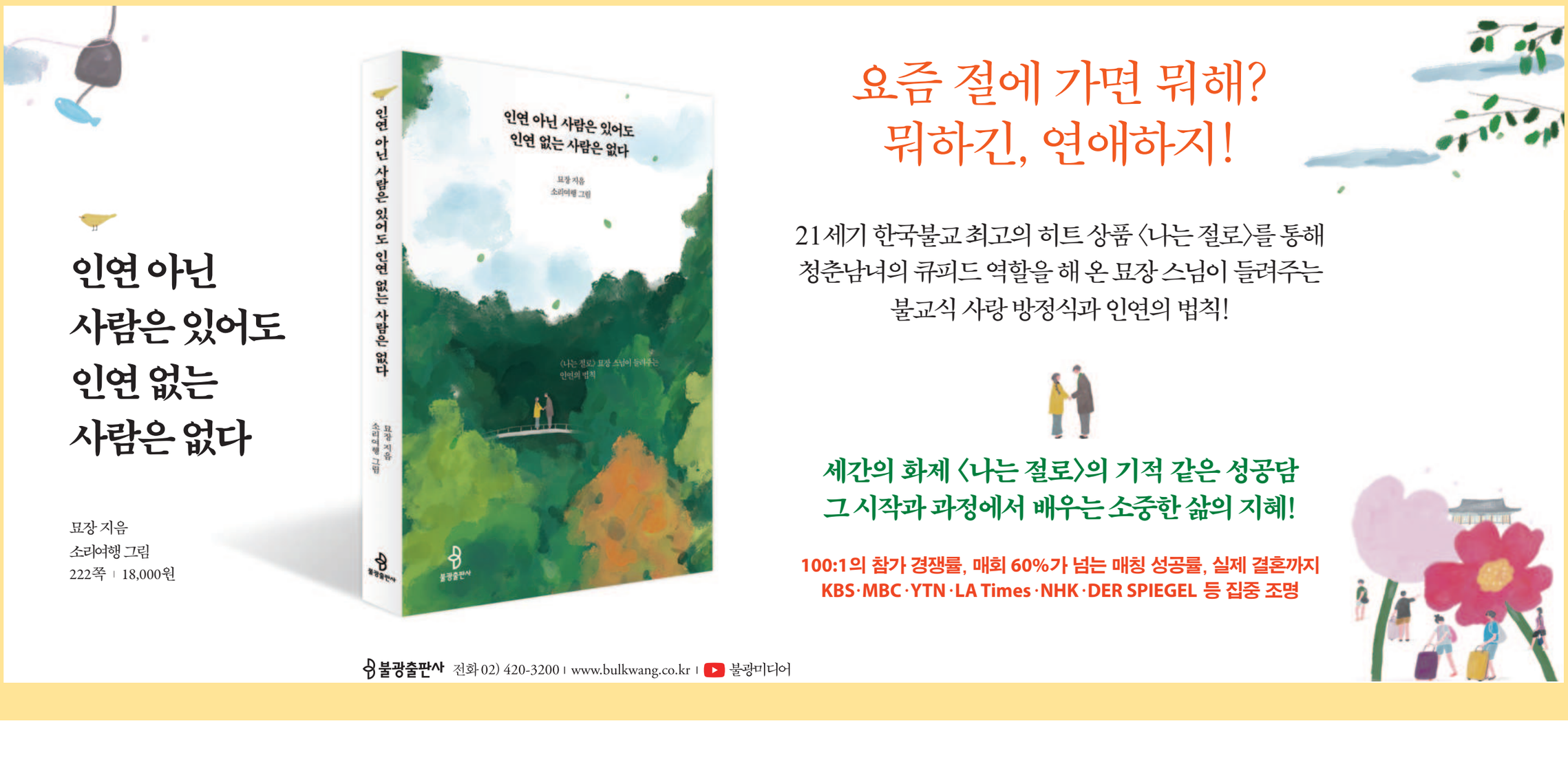
홍현승 지음
도서출판 해조음
1만3000원

"장애는 병이 아니다. 치유의 대상도 아니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가는 우리의 삶이다."

조계종 신행수기공모전 우수상,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시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고 2020년 시집 〈등대〉를 출간한 저자의 첫 수필집이다.

1부에서는 일상생활과 세 군데 대학을 옮겨가며 끝내 창작인이 된 과정을 술회한다. 2부에서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단단한 사유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담담하게 드러낸다.

3부는 "가장 힘들고 간절할 때 기도의 힘이 나온다"는 저자의 수행기와 몽골불교문화 순례기 등을 담았다.



숨겨진 불교 항일운동 기록을 찾아서



꽁꽁 싸맨 보따리
이성수 지음 / 담앤북스
2만8000원

일제강점기 한국불교 독립운동사 현장 조사로 밝혀낸 역사적 자료
만세운동 주도·한글 경전 발간 등
"독립운동은 중생구제의 방편"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윤봉길 의사가 불교 신자였다?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중앙학림 학생들이 만해 스님과 함께 3·1운동을 주도했다? 서울 조계사 마당에서 한국 야구 최초의 시구가 이뤄졌다?

정말 그럴까, 고개가 갸웃해지지만 모두 역사적 사실이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그간 '친일과 굴종의 역사'로 기억되어 온 한국 불교계의 일제강점기 역사에서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내 기록한 책이 출간됐다.

이성수 불교신문 편집국장의 〈꽁꽁 싸맨 보따리〉는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 직후 방문했던 서울 대각사부터 제주 법정사 무장 항쟁 현장까지, 전국의 독립운동 현장을 찾아다니며 발굴한 한국불교 독립운동의 기록이다.

책 제목은 '진관사 태극기(보물)'에서 유래한다. 2009년 서울 진관사 칠성각 보수 당시,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의 형상을 덧칠한 형태의 태극기에 독립신문류 등이 꽁꽁 싸매진 채 발견됐다. 이는 일제강점기 진관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친 백초월(1878~1944) 스님이 비장한 것이다.

책에서는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의 역사를 △독립 △문화 △교육 △수행의 네 분야로 나눠 조명한다.

1부 '독립'에서는 해방 후 귀국한 김구 선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서울 대각사를 방문해 동암 스님 등 불교계 인사들과 촬영한 사진이 72년 만에 공개된다. 또 윤봉길 의사가 1932년 상해 의거 후 종교를 묻는 질문에 '불교'라고 답한 일본군 신문 조서를 소개한다. 1919년 3·1운동 당시 중앙학림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통도사와 범어사 등 전국 사찰에서 독립의 함성이 울렸음도 알 수 있다.

2부에서는 문화와 교육, 수행으로 민족정신을 계승한 불교계의 활동을



해방 후 귀국한 백범 김구 주석이 출가 사찰인 공주 마곡사를 찾아 임시정부 요인 및 지역 주민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 제공=마곡사

기록했다. 일제의 탄압에도 범어사 해동역경원은 한글 경전을 발간해 민족의 얼을 지켰고, 조계사 마당에서 한국 최초의 야구 시구가 이뤄진 사실, 문화통치 기간에도 면면히 이어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3부 '교육'에서는 민족학교 광성의숙과 청룡초등학교 설립, 야학 운동 등 불교계가 신학문을 가르치고 민중의식을 깨우치며 근대교육의 불씨를 지폈던 발자취를 다룬다. 4부 '수행'에서는 근대 최초로 인도를 순례한 이영재 스님과 이재민 구휼에 나선 만공 선사 등 수행과 중생구제를 멈추지 않았던 스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불교계의 굳건한 정신을 보여준다.

저자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고, 문화를 보존하며,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를 준비한 선각자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며 "그분들에게 독립운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었고, 중생구제의 또 다른 방편이었다"고 말한다.

율(律)의 씨줄과 날줄을 꿰다



정법의 변천에 관한 통시적 연구
설민 스님 지음
민족사 / 3만9500원

시대에 따른 정법의 변화와 수용
"한국불교가 다시 시작할 '화두'"

설민 스님이 초기불교부터 오늘날 한국불교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되었는지를 고찰한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펴냈다.

정법(淨法)은 불교의 승가 공동체가 청정함을 유지하며 수행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원리다.

부처님 재세 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해결 과정에서 율(律)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부처님 입멸 후 시대가 흐르면서 '율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생겨났고, 이는 수많은 분파와 논쟁, 다양한 실천 양식을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율을 보존하면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법(淨法)이 탄생했다.

이 책은 율이 시대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수용·발전해 왔는지를 밝힌 '율학 통사(通史)'다. 율의 변화 과정을 다루는 한편, '정법'이라는 개념이 각 나라와 시대의 윤리적 요구에 부응한 방식을 살핀다.

초기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직접 제정한 계율을 철저히 지켰으며, 개인과 공동체의 해탈을 동시에 추구했다. 부파불교 시대에는 계율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승가 분열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율의 절대 보존'과 '시대에 맞는 율의 개편'이라는 양극단이 등장했다. 대승불교는 기존 율장을 부정하거나 우회하면서 자서수계, 십선계, 삼취정계 등 새로운 형태의 계율을 제정했고, 이는 '보살의 수행'을 강조하는 윤리로 전환됐다.

중국 불교에서는 선종의 '청규'가 현실과 수행을 조화시키는 실천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한국불교에도 계승되어 조계종의 수행 전통으로 이어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불교가 청규를 비롯한 다양한 정법을 통해 계율의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시대 변화에 적응해 왔다는 점이다.

저자는 "정법은 전통 계율을 보전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미래 불교를 여는 길"이라며 승가 교육 현장, 재가 신행 시스템, 불교 제도와 교단 운영에 이르기까지 불교 전반에 걸쳐 '다시 시작해야 할 화두'임을 역설한다.

설민 스님은 1985년 지형 스님(부산 보덕사)을 은사로 출가해 범어사에서 사미니계, 통도사에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청암사 율원과 청암사 율학승가대학원 연구과정,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화원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동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함양 향운암에 주석하며 한국불교상담학회 이사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여수령 기자

고요한 자리를 기억해 내는 '명상'



명상
심성일 지음
침묵의 향기
1만3000원

평화 이루는 20가지 명상법
'비이원론' 관점의 삶 제시

"명상은 어떤 특정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지금 여기'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선(禪) 공부모임을 이끌고 있는 저자가 명상의 세계로 안내하는 에세이다.

1부에서는 20가지 명상을 통해 독자를 명상으로 이끈다. 후회, 불안, 두려움, 외로움, 무기력 등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을 때, 그 모든 감정을 허용하며 생각과 감정 너머의 평화로운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이 책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당신 안에 이미 있는 어떤 것을 기억하게 도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어 이전의 침묵, 생각 이전의 알아차림, 그리고 늘 여기에 있던, 참된 당신 자신입니다."

2부 '묻고 답하고'에서는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3부 '당신에게 보내는 마음 엽서'는 독자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4부 '참된 수행: 일상의 문으로 들어가기'에서는 세계가 둘로 나뉘어 있지 않다는 '비이원론'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제시한다.

저자는 2013년부터 마음공부에 뜻을 둔 이들과 함께하며 현재 부산, 진주, 대구, 광주에서 공부 모임을 열고 있다. 저서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선(禪)으로 읽는 복음〉, 〈이것이 선(禪)이다〉, 〈깨달음의 노래〉, 〈자기에게 돌아오라〉 등이 있다. 여수령 기자

명상에 관한 일곱 개의 시선



명상전통 가로지르기
김준호 편집
조준호 등 지음
다르샤나 / 2만원

요가·명상 텍스트의 '맥락 너머'
실천적 전통을 오늘의 언어로

명상은 인간의 내면을 탐색하고 존재의 본질을 묻는 여정이다. 시대와 지역, 전통과 언어를 넘어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져 온 명상의 가르침은 그 자체로 인류 정신사의 위대한 유산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해 주는 소중한 지침이다.

〈명상전통 가로지르기〉는 요가와 명상 관련 텍스트의 '맥락 너머'를 탐구한 작업으로,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소장 임승택)가 2020년 9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요가와 명상: 텍스트와 트랜스-텍스트(Trans-text)'의 결과물을 모은 두 번째 책이다.

책에는 △정중무상과 태국 숲속 전통의 친화성(조준호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초빙교수) △선경(禪經)에 나타난 무념(無念)의 네 가지 의미(김준호 경북대 인문학술원 동서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 △텍스트 전승의 불일치와 명상수행의 변용(차상엽 경북대 인문학술원 동서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 △샤이바 딴뜨라 전통에서 꾼달리니 개념의 탄생과 발전(방정란 경상국립대 인문학연구소) △좌·우 코를 이용한 호흡법 연구(박영길 경북대 인문학술원 동서사상연구소 전임연구원) 등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 사상적 배경의 명상전통을 재조명한 글이 담겨 있다.

임승택 소장은 "이 책은 한편으로는 동양 고전문헌에 대한 정밀한 문헌학적 분석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명상이라는 실천적 전통을 오늘의 언어로 되살리려는 사유의 여정"이라며 "이를 통해 독자들은 명상이라는 주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여수령 기자



팔정도와 간화선의 수행 방법 중도로 융합!
현대인을 위한 간화선
간화선의 수행 방법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우리 삶을 실천과 자비로 이끌고, 이를 통해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제시한다.
오용석 저/신국판/328쪽/값 23,000원

부처님의 교법과 수행의 핵심을 한 권에!
시골 농부의 마음공부
수행과 농사일을 병행하며 살아가는 귀촌 농부가 그동안 공부하고 닦은 바, 즉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과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을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김일문 지음/국판/양장/256쪽/값 17,000원

동화로 읽는 보왕삼매론!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고 경책해야 할 10가지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보왕삼매론」을 어린이들이 생각해볼 수 있게 재미있는 동화로 각색하였다.
한상희 글, 용정운 그림/사륙배판 변형/108쪽/값 12,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지난 7월 말경 발생한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으로 마을 주민 및 학생 80%가 피난길에 올랐다. 다행히 현재는 다시 일상을 회복 중이다. 사진은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 캄보디아 국경 인근 뽀디봉 마을에 건립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

총성 멎은 자리에 아이들 웃음꽃 피어나다

캄보디아-태국 분쟁 **뽀디봉 마을 이야기**

7월, 태국–캄보디아 분쟁 발발
수레꾼 지원 뽀디봉 마을 위협
마을 주민들 정처 없이 피난길
16년 간 세워 낸 학교 등 위기

주변 만류에도 '뽀디봉行' 선택
분쟁 중재되면서 주민들 마을로
"포탄들이 상공 가로질러" 증언
일상 찾아가는 학생 보며 안도

초등학교엔 시청각 교보재 지원
중학교 및 새로 설립 공예학교엔
컴퓨터 · 레이저 프린트 등 전달
"수레꾼, 자비 실천 등불 밝힐 것"

지난 7월 말,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는 다시금 총성이 울렸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프레아비히어 사원(Temple og Preah Vihear) 인근 영토 분쟁이 무력 충돌로 비화하면서 불과 닷새 사이에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10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이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이미 두 차례(1962년, 2013년)에 걸쳐 이 지역의 소유권을 캄보디아에 귀속한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선에 대한 해석 차이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되어 왔습니다.

7월 24일 오전에 시작된 이번 충돌은 전투기와 드론이 동원되고 캄보디아군 장성 2명이 전사하는 등 사실상 전쟁에 가까운 양상이었습니다. 민간인 거주지에까지 포탄이 떨어지며 국경 근처 마을들이 불타올랐고 주민들이 대거 국경을 넘어 탈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회원국들의 압박과 중재 속에서 7월 28일 밤 간신히 휴전이 성립되었지만, 이후에도 국경 지대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며 긴장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뽀디봉 마을에도 戰火가

이토록 오랜 분쟁의 씨앗을 품고 있는 프레아비히어 사원은 캄보디아 북동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16년 전부터 한국의 재가불자 비영리단체인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하 수레꾼)'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으며 일구어 온 뽀디봉 마을도 덮쳤습니다.

캄보디아 북서부에 있는 뽀디봉 마을은 태국 국경에서 불과 20km 떨어진 작은 마을인데, 이곳에서부터 그리 멀지 않은 타문톰 사원에서도 뜻하지 않게 큰 총격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듬성듬성한 철조망이 엉성하게 국경을 대신하고 있는 곳에 위치한 타문톰 사원에, 40년간 캄보디아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훈센 정권의 다연발 로켓 포격이 가해져 사상자가 속출했고, 이로 인해 다섯 곳 이상의 국경 지역에서 전투가 동시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던 황무지에서 시작된 수레꾼의 노력이 일시에 사라져버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공예학교를 세우고, 이곳 아이들과 주민들이 '희망의 학교'라 부르던 배움터를 중심으로 미래의 씨앗을 뿌리고 키워 왔는데 이번 캄보디아 북서부의 국경에서 갑자기 일어난 전쟁 앞에 그 모든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등지고 떠나야 했습니다. 우기의 억센 비는 멈출 줄 몰랐고, 집과 논밭은 허망하게 비워졌습니다. 경운기 위에는 천막이 실리고, 그 위로 노인과 아이들이 빗줄기를 맞으며 몸을 의탁했습니다. 세찬 비를 뚫고 나서는 길은 목적지도 없는 피난길이었고, 오랜 세월 한 뼘 한 뼘 가꿔 온 삶의 보금자리는 그 뒤로 초라하게 남겨졌습니다. 전쟁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력 앞에서, 사람들은 눈물조차 제대로 흘릴 틈 없이 정처 없이 내몰려야 했던 것입니다.

수레꾼, 다시 뽀디봉 마을로

주변의 많은 이들이 이번만큼은 너무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거듭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수레꾼의 대표로서 이곳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위험 앞에서 등을 돌린다면, 학교를 세우고,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며 함께 살아온 지난날들이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곁을 지키고 함께 울고 함께 서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길을 걸어온 수레꾼이 끝까지 감당해야 할 도리이자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서 지켜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지난 8월 15일, 마을에 도착해 보니 주민의 절반 정도만 돌아와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귀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온 가족이 경운기에 몸을 싣고 100km가 넘는 길을 며칠씩 달려가 난민촌에서 지내야 했던 이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데에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학교의 교실은 몇몇 학생들만이 등교해 텅 비어 있었고, 평소의 활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십여 명의 마을 경비단과 함께 학교를 지켜온 팅 힘(Ting Him) 뽀디봉 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포격이 일어나는 날, 태국에서 쏜 포탄이 학교 상공을 가로질러 날아왔습니다. 포탄의 궤적과 불꽃이 하늘을 가를 때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색의 논밭 위로 드넓게 펼쳐진 열대의 구름 사이로 포탄이 날아다니는 장면을 떠올리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이 학교와 마을에 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며, 학용품을 지원해 온 한국 불자들의 정성과 땀이 한 순간에 사라질 뻔한 아찔한 비극이 눈앞에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 포탄들 가운데 몇 발은 실제로 우리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초등학교에 떨어져 학교 건물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참담한 장면은 현지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보도될 만큼 큰 사건이었기에, 결코 남의 일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낸지 열흘이 지난 지금은 다행히 주민의 80% 이상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피난을 어디로 가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자동차로 약 3시간쯤 떨어진 씨엠립 근처에 있는 사원의 마당에 천막 텐트를 치고 수백 가구씩 나누어서 생활하다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동차로도 세 시간이 걸리는 길을, 경운기를 타고 간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더구나 하루도 빠짐없이 내리는 세찬 비를 맞아가면서 줄지어 피난갔을 광경을 상상하니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처럼 열악한 피난 생활 탓에 아이들과 노인들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음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인 쏘리야(Soriya)는 물론 그의 아버지와 두 딸 모두 댕기열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는 모습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는 우선 학교에 비상약을 비치하도록 조치하고, 교정을 이곳저곳 둘러보았습니다.

전쟁에도 희망은 계속돼야 한다

학교 운동장에서 언제 그런 비극을 겪었나 싶게 활기차게 웃고 노는 아이들을 보니 더욱 더 책임감이 강해졌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극악하게 변한다 해도, 부처님의 자비심을 실천하며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수레꾼의 원력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학교는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하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시청각 교육용 프로젝터를 설치했고, 중학교에도 개교 이래 최초로 컴퓨터 4대, 레이저 프린터와 컬러 프린터를 구입하여 새로 지은 공예학교 교실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더 많은 컴퓨터를 장만해 학생들이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개교한 수레꾼 공예학교 봉제반에는 신입생 8명을 위한 재봉틀 10대를 새로 설치하고 교육을 시작했으며, 목공반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목공예를 배울 수 있도록 추가 장비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봉제반 학생들을 씨엠립 시장으로 데려가 원단과 재료를 직접 고르게 했고, 1년간 성실히 기술을 배운 학생들에게 모두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수레꾼 공예학교에는 봉제 교실이 그럴 듯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목공예 교실과 컴퓨터 교육시설을 갖춘 제대로 된 배움터로 한발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의 후유증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공예학교가 함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열흘간의 짧은 체류를 마치고 돌아서지만, 아이들에게는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창을 마련해 주고 왔다는 뿌듯한 마음입니다.

이번 방문이 위험하다며 만류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만약 오지 않았다면 지난 세월 쌓아 온 마음의 빚을 외면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앞으로도 뽀디봉 마을의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며, 이곳에서 재가불자들이 피워 올린 자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시환(서암)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후원계좌 : 국민은행 후원회비 통장
463501–01–197039
예금주 :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최근 건립된 뽀디봉 공예학교에서 선배 학생들이 신입생들에게 봉제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오시환 수레꾼 대표가 봉제반 장학생 4명에게 각각 장학금 200달러를 전달하고 있다.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 수레꾼이 구입한 컴퓨터 4대가 교실에 설치되고 있다.



오시환 대표가 중학교에 비상약 기금 150달러를 전달하고 있다.



일상을 회복한 학생의 환한 미소.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33 업장을 다스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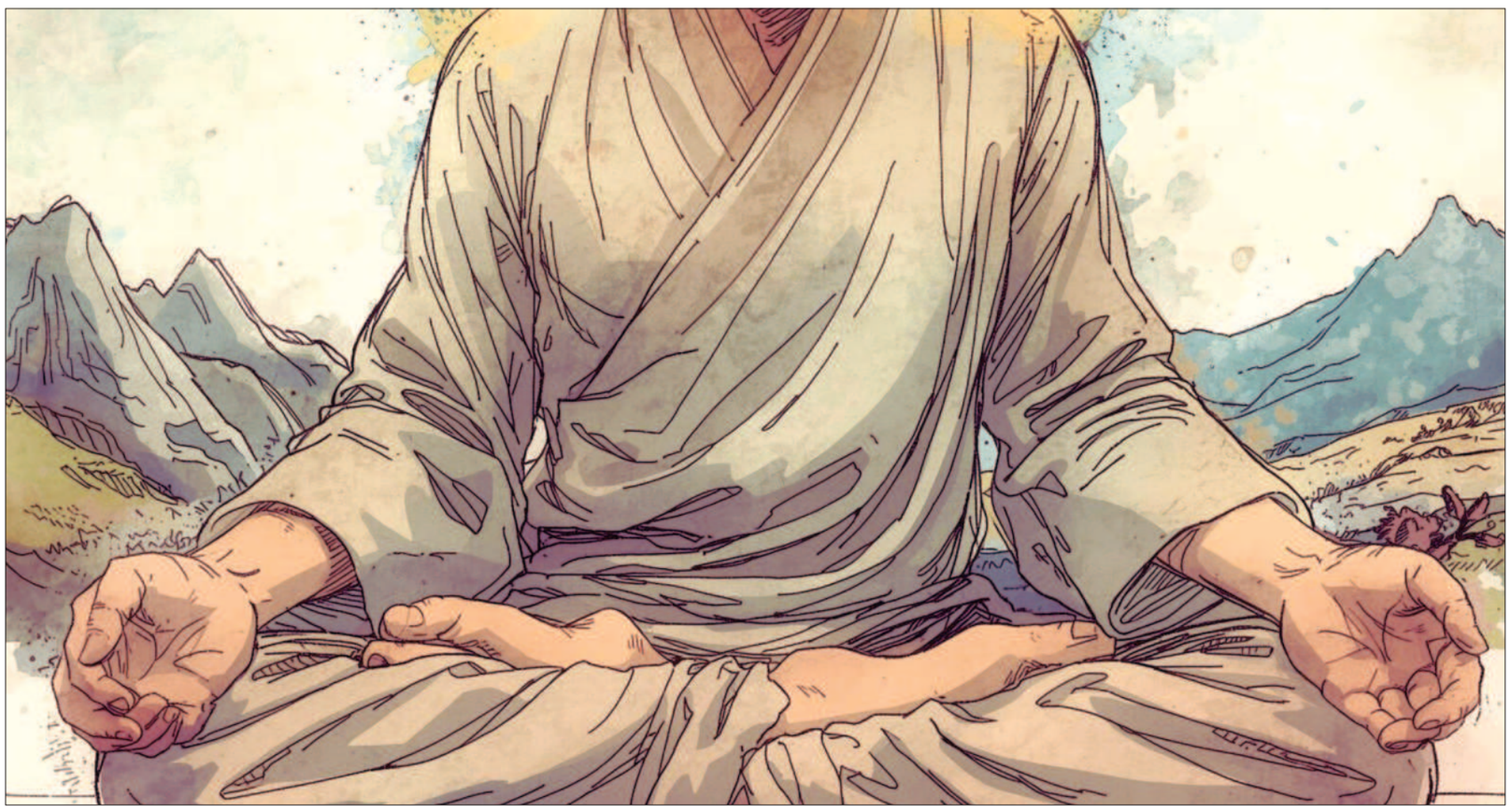
▶한줄 요약
어떤 생각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어떻게 살아가던 그 어떤 위대하고 성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고락사(苦樂捨)라고 하는 삼수작용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는 이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수행과 정진으로 '苦·樂·捨' 모두를 놓아라

"

즐거움 오면 괴로움 옴은 '필연'
무엇을 해도 '고락사' 못 벗어나
윤회의 고통 해결하는 게 '불교'
고락사 해결하는 방법은 수행뿐

"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한 사람을 상대해도 갖은 감정 일어나고
온 세상을 경영해도 내 감정 안이로세.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이 감정을 벗어나지 않으니
좋은 감정 나쁜 기분 이놈의 업(業)을 다스려야.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를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 합하여 오온(五蘊)이라고 합니다. 색(色)은 물질 또는 육체를 가리키고, 수(受)는 감정과 감각의 감수 작용, 상(想)은 기억과 상상 등의 생각, 행(行)은 의지 작용을, 식(識)은 인식 판단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온 중에서 특히 수온(受蘊)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과 감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즐거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을 고(苦)·락(樂)·사(捨), 삼수작용(三受作用)이라 합니다.

중생, 특히 인간은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정(有情)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인간의 속성은 괴로움을 피하려 하고 즐거움을 취하려 합니다. 업식(業識) 즉, 마음이란 바로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생각·의지·인식과 판단 등 오온 중에 나머지 4온(色想行識)은 수온(受蘊)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는 의미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체의 행위는 즐겁고 기쁘고 쾌락하고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생과 도둑질, 간음, 거짓말, 나쁜 음식 등을 행하는 것도 낙수(樂受, 즐거움과 기쁨)작용이요, 인류와 국가, 민족, 조직, 이웃, 가족, 자식 등을 위한 봉사와 희생 등도 결국 자신의 낙수를 위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락(苦樂)의 감정과 감각, 기분은 어느 하나만이 존재할 수가 없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즐거움은 괴로움이 있어야 나타나고, 괴로움은 즐거움 때문에 생기는 것이어서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상대성을 갖고 있으므로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따라서 생기고,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하나도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를 인과(因果)의 속성 또는 법칙이라 합니다. 인과가 있고 없고,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어떻게 살아가던 그 어떤 위대하고 성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고락사(苦樂捨)라고 하는 삼수작용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는 이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근본적인 마음의 모습을 해결하지 않고는 세상에 더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윤회(輪廻)의 고(苦)를 면치 못할지니, 마음의 인과 즉, 즐거운 마음과 괴로운 마음,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마음, 이 세 가지 고락사, 삼수작용을 처리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락사의 삼수작용을 처리하는 방법을 수행이라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신심과 기도, 정진, 그리고 보시가 기본이 되어야 마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명상]
자신이 하는 행동은 자신이 보고 배워
자신의 업장(業障)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느니
보고 배운 업장을 다시 또 쓰게 되거늘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신의 업장을 속일 수 없으리.

고업(苦業, 괴로운 마음)과 락업(樂業, 즐거운 마음)이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육근(六根, 눈·귀·코·혀·몸·생각)의 기능이 멈추어지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온 정신이 한곳에 집착할 정도가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며,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극도의 고업이 나타날 때는 괴로움의 고통에 정신을 차리기 어렵습니다.

몸이 극도로 아프거나 가족이나 친구, 사랑하는 이들에게 극단적인 일이 생기거나 재산을 몽땅 잃어버리거나 심한 상사병이 생기거나 조울증이나 우울증이 극도로 심하거나 극단의 위험에 처하는 등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밀려올 때는 온통 괴로움에 쌓여 어쩔 줄을 모르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반대로 극도의 락업이 나타날 때 역시 즐거움의 기쁨에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할 때나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할 때나 마약을 했을 때나 엄청나게 재미있는 게임을 할 때 등등….

이러한 극도의 즐거움이나 괴로움이 밀려올 때, 대개의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지금 당장 죽기보다 더한 고통과 괴로움에 휩싸여 있을 때는 옳고 그름이 무슨 소용이며, 자비와 평화, 부처와 보살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일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중생은 누구나 고락(苦樂)의 업으로 살아갑니다. 고(苦)의 마음이 있으니 락(樂)의 마음이 생기고, 즐거운 마음이 있으니 괴로운 마음이 생기므로 이 둘의 마음이 서로 번갈아 나타나는 삶을 중생(衆生)이라 합니다.

인연 현상은 내 마음의 고락에 따라 대상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즉, 마음의 고업이 생길 때(시간)가 되면 괴로운 일이 나타나게 되고, 마음의 락업이 생길 때가 되면 즐거운 일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업연은 평생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전생과 금생, 내생을 통해 한치 오차 없이 정교한 업의 인연으로 나타납니다.

업연(業緣)이란 불을 만지면 금방 따뜻한 인연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뜨거운 인연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지구의 온난화와 같이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지구를 뜨겁게 하듯이 긴 시간을 통해 업연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온갖 방법으로 괴로움을 피하고,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얻으려 애를 쓰지만 마음 안에 고락이 크면 클수록 현실로 나타나는 고락 또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락업의 인과에 의해 어느 때는 죽을 만큼의 고통과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마음이라고 하는 고락의 업을 먼저 멸(滅)해야 내 앞에 나타나는 인연현상 또한 걸림이 없어지고 평온하게 되니, 부처님께서는 팔만대장경을 통해 오로지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 고락의 업을 멸하는 방법은 바로 밖으로는 육바라밀(六波羅蜜, 보시·지계·인욕·정진·반야·지혜)을 행하고, 안으로는 참선을 통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육바라밀행과 참선을 뜻하며, 이 둘을 끊임없이 행하는 것을 정진이라 합니다. 오늘도 기도 정진으로 갈무리를 합시다.

〈조계종 총무원장〉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술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독시 석결명죽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5,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82,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50,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⑯ 방하착(放下著) : 도종환의 '단풍 드는 날'



▶한줄 요약
도종환 시인은 방하착(放下著), 즉 자신을 내려놓아서 단풍이 생겨났다고 했는데, 이는 삶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을 모두 버리면 가장 황홀한 삶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려놓음으로 맺힌 단풍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에 가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었다. 대개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적선한다는 마음으로 돈을 주곤 했다. 내가 돈을 줬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빌리려다 겸연쩍어 도망가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일도 참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자신을 한없이 낮춰야만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경우야 다르지만, 출가한 사문(沙門)이 탁발하는 일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이 역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문을 가리켜 '걸사(乞士)'라고 하는데, 먹을 것을 비는 사람이 어찌 우쭐한 마음을 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인지 '하심(下心)에는 탁발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가짜 승려들의 문제로 지금은 금하고 있지만, 탁발은 아상(我相)을 내려놓는 좋은 수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도종환 시인의 '단풍 드는 날'을 읽다가 문득 하심이란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시인에 의하면 방하착(放下著), 즉 자신을 내려놓아서 단풍이 생겨났다고 한다. 가을이 되면 온 산하를 '황홀한 빛깔로' 물들이는 단풍이 다름 아닌, 하심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처럼 '나'라는 상(相)을 내려놓으면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인격도 단풍처럼 곱게 물들 수 있을까?

도종환은 1986년 출간한 시집 〈접시꽃 당신〉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시인이다. 이 시는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며 쓴 작품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했다. 특히 주부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은 이 시집은 300만 부 이상 판매됐다고 한다. 다시 시를 읽으면서 눈에 들어온 대목이다.

"우리가 버리지 못했던 / 보잘것없는 눈높음과 영욕까지도 / 이제는 스스럼없이 버리고 / 내 마음의 모두를 더욱 아리고 슬픈 사람에게 / 줄 수 있는 날들이 짧아진 것을 아파해야 합니다."

시인은 접시꽃 같은 아내를 생각하며 '무너지는 담벼락을 껴안은 듯' 떨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있었다. 또한 '옥수수잎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아내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말한다. 영원히 당신 곁에 있겠다고. 아내를 향한 사랑이 참으로 아리게 다가오는 시다. 이 절절한 사랑 이야기는 1988년 박철수 감독에 의해 같은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졌다. 배우 이덕화와 이보희가 주연을 맡아 열연했는데, 관객에서 큰 감동을 준 것은 물론 흥행에도 성공했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도종환은 적지 않은 삶의 부침을 겪은 시인이다. 그는 1977년 청주에서 교편을 잡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1984년에는 동인지 〈분단시대〉에 '고두미 마을'을 비롯한 5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도 한다. 하지만 시인에게 커다란 시련이 찾아온다. 1989년 전교조 결성에 참여했다가 해직되는 아픔을 겪은 것이다. 이후 다시 복직했지만, 지병을 이유로 휴직하다 결국 교직을 그만두게 된다.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던 시인이 새롭게 각인된 것은 정치인으로 변신하면서부터다. 그는 19대와 20대, 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7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임을 맡아 국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는 〈접시꽃 당신〉 이외에도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슬픔의 뿌리〉, 〈해인으로 가는 길〉, 〈모과〉, 〈나무야 안녕〉 등이 있다. 1997년 민족예술상을 비롯해 거창평화인권문학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부문 예술상을 받았다.

'단풍 드는 날'은 2012년 출간한 시집 〈슬픔의 뿌리〉에 실린 시다.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에도 실려 있다. 시인의 지적대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의 주제인 단풍 역시 이런저런 바람에 흔들리고 아름답게 물든 것이다. 가을이면 온 산하를 붉게 수놓는 단풍은 마치 우리 삶의 절정과도 같다. 얼마나 황홀하게 물이 드는지, 시를 통해 확인해 보자.

시인은 단풍이 방하착의 결과라 노래
가을 산하 단풍, 우리 삶의 절정 같아
전부라 여긴 것 버릴수록 자유 얻어

"버려야 할 것이 /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 제 삶의 이유였던 것 / 제 몸의 전부였던 것 /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 방하착(放下著) / 제가 키워 온, /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 제 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 가장 황홀한 빛깔로 / 우리도 물이 드는 날."

버릴수록 곱게 물드는 불격(佛格)

이 시를 읽으면서 어깨에 무거운 보따리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였다. 보따리 안에는 자식이나 돈, 명예, 외모 등 여러 짐들이 들어 있다.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꾸 엇나간다고 생각되는 자녀들, 욕심만큼 충족되지 않는 돈이나 명예, 영원할 줄 알았는데 자꾸만 늙어 가는 외모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어찌 그뿐이던가. 무리하게 대출받아 겨우 내 집 마련을 했더니, 금리는 오르고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 마음 졸이는 모습도 그 안에 담겨 있다. 너무 무겁지만 내려놓으면 큰일이 날 것만 같다. 시인의 지적대로 삶의 이유이자 자신의 전부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때 시인은 과감하게 아낌없이 모두 버리라고 말한다. 그러면 나무가 생의 절정에 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가장 황홀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불자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아주 묵직한 사자후를 토해 낸다. 선가(禪家)의 표현을 빌리면 사구(死句), 즉 죽은 말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활구(活句)다.

"방하착(放下著)."

시 전체를 압도하는 말이다. 내려놓으면 몸과 마음이 가볍고 자유롭다고 하지만, 중생들에겐 그저 죽은 말로 다가올 뿐이다. 말로는 할 수 있어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것이다. 이는 마치 사회적으로 엘리트라 불리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그들은 파렴치한 교주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삶 전체가 부정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내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그만인데, 삶 전체를 지탱해 온 기둥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정말로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

개인적으로 불교 수업을 할 때 드라마나 영화, 대중가요, 시 등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어려운 불교를 학인들에게 쉽게 전하기 위한 방편이다. 특히 마지막 시간에는 KBS '드라마 시티'에서 방영했던 '산사의 아침'이라는 작품을 보여 준다.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고승의 법문을 듣는 것 같아 수업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한수 행자는 '흔들림 없는 부동심과 변함없는 평상심'이라는 자신만의 도(道)를 고집하고 있었다. 자신이 머물던 절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는 한밤중에 절을 떠난다. 그런데 바위 사이를 내려가다 미끄러지면서 간신히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게 된다. 이것을 놓는 순간 아래로 떨어진다는 생각에 그는 안간힘을 쓰면서 밤새도록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었다. 힘을 모두 소진한 주인공은 포기하는 마음으로 손을 놓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낭떠러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생명줄이라 생각했던 나뭇가지를 놓아 버리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만의 방식에 갇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눈앞의 절경을 감상할 줄 모르면서 선(禪) 공부를 100년 하면 무엇하며, 경(經)을 만 권 읽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스승의 가르침이 이제야 마음에 들어온다. 행자에게 생의 절정, 깨달음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주인공은 '무거워진 제 몸'을 내려놓고 '가장 황홀한 빛깔로' 인격에서 불격(佛格)으로 물들고 있었다.

드라마와 도종환의 시가 서로 맥락이 통하는 것 같아 소개했다. 주인공이 붙잡고 있던 나뭇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시인이 지적한 것처럼, 제 삶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들이다. 앞서 언급한 돈이나 자식, 명예 등이라 할 수 있다. 버리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 목록이다. 하지만 그것을 놓는다고 죽을 일은 별로 없다. 오히려 버리면 버릴수록 자유를 얻고 가장 아름답게 물든다는 것이 부처님을 비롯한 성현들의 가르침이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보내서인지 가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뜨거웠던 만큼 이제는 무거워진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다. 박경리 작가도 그렇지 않았는가.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고. 버릴수록 곱게 물드는 것이 불격(佛格)이다. 여름을 뒤로하고 가을이 조금씩 익어가고 있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2025년 9월 3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45호 | 15 | 전면광고

다른 사람이 곧 나요, 내가 곧 남이라고 생각하여 나 아닌 남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아함경》에서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포교원 건물 급매
- 대지 : 200평
- 4층 포교원, 5개층, 산 및 근린
- 생활시설, 현6000/700만 수익
- 시세 70억 매가 45억, 주차가 매수완료시 수익1000~1300만 가능
- 위치 : 충남사찰 봉안당
- 면적 : 2000평, 사찰
- 법당 : 30평, 봉안 20000분
- 현재운영 중, 버스 진입 가
- 매가 : 25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포교원 하실분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 매매가격 : 5억5천
- 대지 : 107평(354㎡) / 건평 : 150.2평
- 지하 : 24.4평 / 1층 : 67.4평 / 2층 : 58.3평 / 옥상
- 1층과 지하 전세줌 / 1층 화장실1 2층 법당1 방2 주방 거실 화장실2

010-3042-0852

포교당 안내

전월세입자 구함

- 위치 :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160 4층
- 면적 : 4층 45평, 총 90평 전체 사용 가능
- 대웅전 약 30평, 공양간, 종무소
- 요사채 별도 존재,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전세금 및 집기 일체 5000만원(절충)

010-4179-62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동고령ic부근
- 230평 법당18평
-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과 용왕불 3필지
- 가액 : 4억7천
- 절충가능

010-3540-84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만산길 320 청명사
- 가액 : 2억 7천 만원
- 총 토지 면적 : 520평 / 법당 : 19평 요사채A동 : 19평 / 요사채B동 : 17평 삼성각 : 2.5평 / 주지 : 연공스님
- 건물 및 토지 일괄 매매, 즉시 입주 가능 노스님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010-5275-1373

주택 지상권 안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도산면
- 용도 : 토굴, 요양, 주말휴식
- 방1 주방1 화장실 실내1, 실외1
- 창고3 원두막1 잔디마당
- 리모델링, 에어컨 설비, 기름보일러
- 4가구 거주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
- 가액 : 2800만원

010-5454-766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합천호수로(무학대사 숫가락으로 우물판 자연동굴 옆, 굿당-기도처 최적지)
- 약 80평 사찰
- 법당 요사채 대지420평 임야 210평
- 가액 : 3억원

010-2078-959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완도
- 평수 : 1860평
- 법당 : 25평 산신각 : 8평
- 요사채 : 45평, 28평
- ※태양광, 저온창고, 화장실 3개
- 가액 : 5억(절충 가능)

010-5635-949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시내
- 대지 : 11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 가액 : 7억 4000만원

010-3868-8219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130평
- 법당, 소불당 삼성각 용왕당
- 사시사철 자연수, 상수도 전망 아주좋음
- 매매 또는 전월세 가능

010-5033-1422

좋은인연 대출안내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시내서 사천시 경계
- 대지 총 133평(텃밭 20평 포함)
- 건물 법당 30평(인법당 및 스님 주거공간 포함)
- 공양채 20평(태양광 3K 설치 완료)
- 법당시설 완벽함(최상급 인법당 시설)
- 법사님 비구니 스님 추천(토굴로 적합)
- 매매가 3억 6500만원 (은행 융자 1억 5500만원 포함)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0-5003-4678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67번지 4층
- 약 30평, 방2, 법당1, 화장실1
- 보증금 500/월세 4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인연닿아 포교당 운영하실 스님 찾습니다

010-4641-5474

사 찰 안 내

- 위치 : 청통와촌IC에서 7분거리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3억 5000만원

010-5804-5100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도원동(대곡아파트 단지, 대곡시장 옆)
- 5층 건물 중 4층, 건평 60평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트 완비
- 보증금 1000만원/월세 70만원(현재, 절충)
- 법회시설 완비(바로 법회 가능)
- 찜질방1, 공양간, 친견실1, 종무소1

010-3545-444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사 찰 안 내

- 평수 600평(법당 60평. 요사채 7방)
- 커피숍 운영 공간 있음
- 금액 : 상담 후 결정

제주도 한라산 아래 위치한 사찰에서 한달기도도량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한 사찰입니다.

064-752-0108
010-2300-19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새고개2길47 (삼천포)
- 대지 : 265평 (법당 20평 정동향)
- 요사채 : 30평 (방3 화2 정남향)
- 황토찜질방 1동 3평
- 대형E마트 도보 3분 위치
- 30대 주차가능, 마당까지 진입
- 가액 : 2억 3천만원(토지가격만 계산했음)

010-8868-70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검전위길 37-25
- 대웅전 20평 삼존불 신중탱화
- 주차 10대 가능 주차장
- 요사채 방1 부엌 화장실
- 몸만 오시면 됩니다. 살림 집기 일체
- 보증금 500만원/월세 20만원

010-9017-487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 산 3900평 대지258평
- 건물3동(대웅전, 요사채, 공양간)
- 주차 가능, 경주시 15분 거리
- 가액 : 3억 5000만원 (집기일체, 절충가능)

010-4554-5984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존경받고, 불사에 큰 마음가지시는 스님께 도량을 올립니다.
- 경상도 내 유명사찰이고, 신도님 약 30만명 (종단본부도량)
- 신라경순왕 시대창건(추정), 현재 불사 약1000억원 시행완료.
- 문화재 2점보유 전통사찰 곧 등재 됨, 대웅전 등 건물12동
- 총무 · 재무 보살님과 직원은 스님이 임명가능 하십니다.
- 추가 불사비용 일부 준비되는 스님만 상담드립니다.(신도회)

053-745-9999, 010-2512-7777

들기름을 이용한 단청보호 및 색채 복원제

들기름 전통 도료

특허출원번호 10-2023-0181680

國寶 蘇子油

소자유

단청보호, 색채 복원제

발수코팅 · 오염방지 기능

천연의 식물성 들기름 원료를 이용하여 우리의 전통과 과학으로 특화된 기술의 결합체인 들기름 전통 도료입니다.

항균시험 99.999%, 중금속 불검출 -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제주목 관아(문화재) 시공사례

동화특수산업(주)
국보도료연구소

문의 I 010-3747-2111
TEL I 031-451-6232 FAX I 031-451-6238
주소 I 경기도 군포시고산로 166, SKI 벤티움 102동 1201호
E-mail I woodgim@hanmail.net

2025년 9월 3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45호 | 16 | 전면광고

전생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다.
내생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짓는 것이 그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화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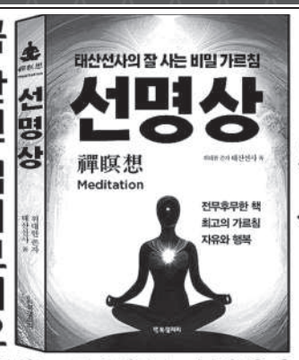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사찰행사)범음범패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생전예수재
연암당 덕평스님
010-6219-4757

꼭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지혜 방편 ! 사주 · 명리 · 구성학
1 :1 강의 단기완성 !
포교당 스님! 찻집보살님!
안양시. 토굴 · 스님
010-9497-3476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 즉시 영가 천도
종교인 상담불가,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사무장 구함 010-4804-2309

49재 천도재 초하루 기도
부산 경남지역
법주사 수현 스님
010-6667-4843

사십구재
바라. 작법. 살풀이. 연화무.
창작무. 태평소. 향피리. 등등
대~소 행사 저렴하게 보시합니다.
충남북~서울~경기 일원
소중한 도량불사 중에
큰 공덕이 될것입니다.
봉헌사 주지 성광
041-338-1599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상담 : 010-2090-4030

염불교육원 수강생 모집 공고
불교 전통의식에 관심 있는 스님, 불교에 뜻을 둔 일반 불자 그리고 재가 · 출가 수행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을 개설하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교육 과정
▶의식반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5시
천도재, 49재, 영산재 등 실전 중심 의식 실습
범패 소리의 조화와 사물 활용법 실습
▶경전반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5시
주요 경전 해설(반야심경)

▣ 교육 기간
▶제1학기 : 2025년 9월 22일 ~
▶제2학기 : 2026년 3월 중

▣ 교육 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93)

접수 기간 | 2025년 8월 11일(월) ~ 문 의 | 055)298-3634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사찰스틸건축 전문
성공기업
스틸공법으로 목재대비 1/3 비용
공사기간 2개월로 단축



010-2628-9944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위 육임 프로그램과 육임Ai와 육임 각 활용서 극대 효능을 위한 저, 효사 개별 직접 방문 전국 순회 일정입니다.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양려드립니다.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⑰ '우리들의 블루스'(2022)

삶의 주인공인 우리 모두 행복하라

'우리들의 블루스'는 독특한 형식의 드라마다. 보통 드라마는 남녀 주인공이 있고 그들과 관련 있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양념처럼 끼워 넣기 마련인데, '우리들의 블루스'는 주인공만 무려 14명이다. 여섯 살짜리 은기(배우 기소유)부터 70대 춘희(배우 고두심)까지, 트럭에 온갖 물건을 싣고 다니며 파는 동석(배우 이병헌)부터 은행 지점장 한수(배우 차승원)까지, 또 이제 막 새 생명을 잉태한 고등학생 영주(배우 노윤서)부터 곧 죽음을 앞둔 옥동(배우 김혜자)까지, 그야말로 성별과 나이와 직업이 모두 다른 온갖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이 여러 명 등장해 각각의 에피소드를 전개해 나가는 드라마를 옴니버스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블루스' 또한 '한수와 은희', '영옥과 정준', '영주와 현' 등 회차별 제목에 등장하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그들의 이야기가 진행된다. 그런데 '우리들의 블루스'는 에피소드마다 주인공이 다르고 각각의 스토리가 단절되는 일반적인 옴니버스와는 구성과 형식 면에서 차이가 있다.

드라마의 3회까지 이어지는 첫 에피소드 '한수와 은희' 편을 보자. 배경이 제주도임을 한눈에 보여 주는 바닷가, 카메라는 버스를 개조한 집에서 잠을 깬 정준(배우 김우빈)에서 시작해 곧바로 공간을 옮겨 침대에서 자는 영옥(배우 한지민)을 지나 주방에서 주먹밥을 만들고 있는 에피소드 주인공 은희(배우 이정은)를 보여 준다. '은희수산'이라 적힌 트럭을 몰고 집을 나서는 은희가 정준을 만나 주먹밥을 나눠 먹으며 어시장에 도착하면, 이번엔 어시장에서 얼음을 나르는 호식(배우 최영준)이 스치듯 지나가고, 영옥의 정체가 해녀이고 정준이 선장임을 알려 주는 데까지만 장장 12분 정도 걸린다. 에피소드의 또 다른 주인공인 한수가 등장하는 건 그다음이다.

이후 은희와 한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틈틈이 다른 주인공들의 관계가 소개된다. 제주도 푸릉마을 은행 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한수는 은희와 호식과 인권(배우 박지환)의 동기동창이고 동석은 이들의 후배이다. 호식과 인권은 동기동창이면서도 원수처럼 지내는데 인권의 아들 현(배우 배현성)과 호식의 딸 영주(배우 노윤서)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 또 춘희와 함께 사는 옥동은 동석의 어머니인데 동석과는 서로 남처럼 지낸다.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주인공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한다.

이처럼 드라마는 1회부터 3회까지 주인공으로 부각되는 인물이 한수와 은희지만, 잠시 조연이 된 다른 주인공들의 사연도 놓치지 않고 보여 주고 있다. 형식은 옴니버스이지만 에피소드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모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블루스'다.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회차별 제목에 등장하는 인물 주인공 옴니버스지만 모든 이 에피소드 담아 본래 깨달아 있다는 화엄불교 입장도

인생은 각자가 주인공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시적으로 내가 중심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잠시 자신을 숨기고 조연을 자처한 것일 뿐, 사실 모든 순간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이런 이치를 화엄불교에서는 드러내고 숨기는 것이 자유롭다고 말한다. '나'라는 존재는 한 명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많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자식'의 모습을,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친구'의 모습을,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부모'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게 상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같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각각의 모습이 내가 아닌 것은 아니다. 내가 자식의 모습을 드러낼 때는 친구나 부모의 모습이 숨어 있으므로 그저 자식의 모습만 겉으로 보일 뿐이고, 내가 부모의 모습을 드러낼 때는 친구나 자식의 모습이 숨어 있을 뿐이다. 그러니 누군가를 온전히 안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푸릉마을에서 같이 자란 은희와 미란(배우 엄정화)은 자타공인 '절친'이다. 그런데 3년 만에 고향에 와서 우연히 은희의 일기장을 보게 된 미란은 충격을 받는다. "아무리 고미란이 널 친구가 아닌 세상 만만한 '따까리'라고 생각하는 나쁜 사람이고 이중인격자라도, 고미란한테 끝까지 의리 있게 싫은 거 상처 받은 거 티 내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는 은희의 비밀스러운 다짐을 본 것이다. 결국 둘은 심하게 다투고 평생 우정은 깨지고 만다. 미란에게 평생 하인 취급을 받았다고 여겨 온 은희와 서울에서 성공해 화려하게 사는 듯하지만 숨겨 온 상처가 많은 미란. 얼마 후 은희는 미란의 마사지숍을 찾아가 따진다. 그리고 이어진 미란의 대답. "의리가 있다면 서운하다, 상처 받았다고 말을 했어야지, 따져야지, 사과 안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머리를 뜯어야지, 그래야 그게 의리이지." 드라마는 좋은 감정뿐만 아니라 불편한 감정마저 나누고 화해할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임을 두 사람을 통해 보여 준다.

제주도 푸릉마을 5일장을 터전으로 억척같이 살고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갈등과 화해를 보여 주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는 맨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자막을 넣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명 하나.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모두 행복하세요!"

2600년 이어져 온 불교는 누구나 깨닫기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근본 가르침을 바탕으로 시간과 지역에 따라 가르침의 표현이 달라져 왔다. 우리는 모두 무명과 번뇌에 싸여 업을 짓고 있으므로 번뇌를 없애야 깨달음을 얻는다고 가르치다가, 우리가 번뇌에 싸여 있기는 하지만 모두 성불할 씨앗을 지니고 있다고도 하고 심지어 본래부터 깨달아 있다고도 한다. 따라서 수행을 설명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는데 초기불교가 번뇌를 줄이는 방식을 말한다면, 여래장불교에서는 불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바뀌고 화엄불교에서는 본래부터 깨달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 사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마지막 전언을 보면, '우리들의 블루스'는 본래부터 깨달아 있다는 화엄불교의 입장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들 각자가 세상의 주인공임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표현하면서 마지막 자막을 통해, 주인공인 우리 모두 행복하라는 위로와 안식의 말을 전하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다. 오늘도 내가 주인공인 나만의 블루스를 연주하며 살 뿐!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의지해서는 안 되는 행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㉝ 삼종의 무의행법(無依行法)

무의행(無依行)이란 의지해서는 안 되는 행이란 뜻으로, 번뇌는 생·노·병·사에 따라 생기며 그것에 의지하지 않는 경지라는 뜻입니다.

"또한 대범천아, ①차죄(遮罪: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결과 죄를 범할 우려가 있기에 금지함. 음주나 땅을 일구므로 벌레를 죽이거나 초목을 꺾거나 하는 등)와 ②성죄(性罪: 행위 그 자체가 죄인 것: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의 무의행법(無依行法: 차죄, 성죄, 근본 죄)이 있다. 성죄 가운데도 근본의 무의행법이 있으니 그것은 이른바 비구가 범행이 아닌 행을 행하면 근본 죄를 범하는 것이요, 혹은 일부러 이생(異生)을 죽이면 근본 죄를 범하는 것이며, 삼보의 물건이 아닌 것을 훔치면 근본 죄를 범하는 것이요, 혹은 크게 거짓말을 하면 근본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비구가 이 4종의 근본 죄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하면, 그는 모든 비구들의 일에서 절복(折伏: 복종 시킴)을 받게 하고 일체의 은혜를 베풀 수 없으며 스님들에게 주는 물건일지라도 받아쓰지 못한다. 그러나 그를 곤장으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꾸짖거나 사지를 찢거나 목숨을 끊지는 못하나니, 이것이 성죄 가운데 근본 중죄인 무의행법이니라.

또 ③근본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이 네 가지 법을 범하면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나쁜 세계에 떨어지나니, 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근본 죄이기 때문에 근본 죄라고 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무간 죄와 무간 죄에 가까운 근본 죄 등을 '지극히 중대한 죄 악업의 무의행법'이라 하는가?

선남자여, 비유하면 쇠뭉치나 아연, 주석 뭉치 등을 공중으로 던지면 잠시도 머물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오무간죄와 무간 죄에 가까운 4종의 근본 죄를 짓거나 바른 법을 비방하고 삼보를 의심하는 이 2종의 죄인(비방정법죄, 의疑삼보죄)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만일 누구나 이 십일종의 죄(오무간죄, 사근무간근본죄, 비방정법죄, 의삼보죄) 가운데 한 가지만 지어도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곧 큰 무간지옥에 태어나 갖은 고통을 받나니, 그러므로 지극히 중대한 죄악업의 무의행법이라 하는 것이다.

이 지극히 중대한 죄악업의 무의행법을 범한 사람은 현재 몸으로는 결코 모든 번뇌를 다하지 못하며, 삼매를 이루지도 못한다. 하물며 정성이생(定性異生: 번뇌장을 끊고 영원히 범부의 생을 떠나는 것)에 어찌 들어가겠느냐? 그는 목숨을 마치면 결코 지옥에 나서 무거운 고통을 받는다.

그러므로 진실로 열반을 구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결코 이런 사법은 범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저 유정들은 반드시 삼인(三因: 정인正因 불성, 요인要因 불성, 연인緣因 불성)에 의해 열반의 즐거움을 얻기 때문이니라. 그 셋이란 ①여래를 의지함으로써 인(因)을 삼음이요, ②성교(聖教)를 의지함으로써 인을 삼음이며, ③나의 제자를 의지함으로써 인을 삼는 것이다. 저 유정들이 이 삼인을 의지하고 부지런히 수행해야 열반의 즐거움을 얻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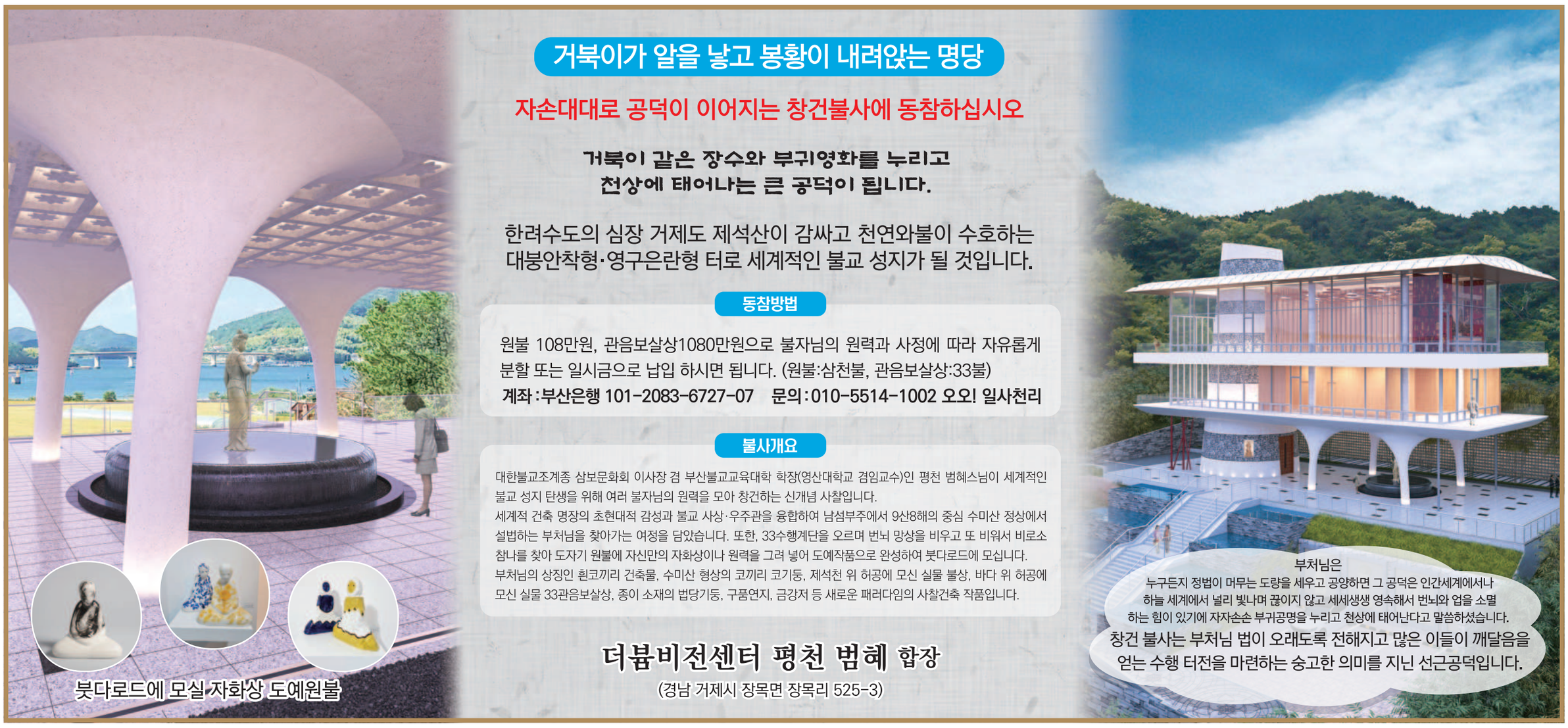
만일 누가 이 사법(四法: 4종의 근본 죄)을 범한다면 나는 그의 스승이 아니며,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만일 누가 이 사법을 헐뜯거나 범하면 내가 말하는 깊고 광대한 무상, 고, 공, 무아에 상응하는 일체유정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는 별해탈의 가르침(계율)을 어기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별해탈 가르침을 어기면 모든 정려, 등지(等持)에 대해 장님이 돼 온갖 번뇌의 악업에 묶여 삼승의 법기도 되지 못하며, 반드시 나쁜 세계에 떨어져 온갖 고통을 받는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말한 별해탈의 가르침과 4종의 근본 중죄에 대해 청정하여 변함이 없으면 나는 그들의 스승이요, 그들은 내 제자가 되어 내 법에 잘 머물러 모든 일을 원만하게 이룬다. … 이 사람은 일체 선법에 잘 머물러 구족하고 성문승과 독각승과 대승에 머무는 사람이라 한다. 왜냐하면 성죄(性罪)의 네 가지 근본법을 호지하면 모든 유루(有漏)와 무루의 선법을 세우는 훌륭한 인(因)을 이루나니, 이 사법의 호지함을 일체 선법의 기본이라 하느니라.

마치 대지를 의지해 약초, 곡식, 초목, 숲이 생장하는 것처럼 지극한 선에 의지해 사근본계(四根本戒)를 호지하면 일체 선법이 모두 생장하느니라. … 또 대지가 일체 유정을 다 수용해 생존하게 하는 것 같이 4종의 근본계를 호지하는 선남자 선여인도 그와 같아 여래가 설한 정법에 대해 기쁨과 깨끗한 믿음을 내고, 모든 유정에 대해 차별하는 생각이 없어 사섭법(四攝法: 불법을 실천하는 이가 상대를 불법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덕목. 보시, 애어, 이행, 동사)으로써 평등하게 섭수해 일체의 유정들이 함께 의지하고 받들어 법을 즐기면서 생존하게 하느니라."

〈송림사 주지〉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⑰ 탑 안에 깃든 간절한 기도



▶한줄 요약
수종사에는 누대에 걸쳐 기도를 올린 조선 왕실 여성들의 자취가 서려 있다. 대웅전 오른편에 자리한 조선시대의 사리탑과 석탑 안에 이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수종사에 담긴 조선 왕실 여성들의 기도

서울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남양주 운길산(雲吉山) 자락에는 수종사(水鍾寺)라는 아담한 사찰이 있다. 수종사의 창건주나 연혁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1459년(세조 5)에 세조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오대산에 거둥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어 왕실과 관련이 깊은 사찰임을 알 수 있다.

사람들에게 수종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를 굽어보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에 많은 문인과 묵객들이 수종사를 찾아 수려한 경관을 노래하고 붓으로 남긴 것도 같은 이유였을 것이다. 또한 수종사는 다실 삼정헌(三鼎軒)을 통해 차 문화를 계승하고, 절을 찾은 이들에게 맑은 차 한 잔을 내어 주는 넉넉한 인심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수종사의 차 문화는 다산 정약용과 초의 선사의 교유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 깊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또 다른 수종사의 이야기가 있다.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누대에 걸쳐 수종사에서 기도를 올렸던 조선 왕실의 여성들 이야기이다. 대웅전 오른편에 자리한 조선시대의 사리탑과 석탑 안에 이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사리탑에 담긴 각별한 모자의 인연

조선 왕실은 수도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사찰에서 왕실을 위한 기도를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수종사 역시 그러한 사찰 중 하나였던 것 같다. 수종사의 건축과 유물 중 가장 시대가 올라가는 것은 대웅전 오른쪽 뜰에 자리한 사리탑과 2기의 석탑이다.

사리탑은 지붕 모양의 옥개석(屋蓋石)과 종 모양의 탑신을 지녔으며 상륜부(相輪部)를 갖춘 모습이다. 수종사 사리탑은 정교한 설계, 안정된 비례, 섬세한 표현 기법이 돋보이는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석조미술품이다. 지대석 표면에는 구름을 형상화한 운기문(雲氣紋)을 가득 새기고, 기단부 중 하단석은 연화문(蓮花紋), 하단석은 초화문(草花紋)을 새겨서 아름답게 장엄했다. 탑신석에는 꿈틀거리는 구름 사이로 꿈틀거리며 나르는 용 두 마리의 모습을 낮은 부조로 새겨 넣었다.

사리탑 옥개석 처마면에는 "太宗 太后/ 貞惠 翁主/ 舍利 造塔/ 施主 文化 柳氏/ 錦城 大君 正統/ 四年 己未 十月日"로 판독되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를 통해 1439년(세종 21)에 문화 류씨(文化 柳氏)와 금성 대군 이유(錦城大君 李瑜, 1426~1457)가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이 탑을 세우고, 그 공덕을 태종(太宗, 재위 1400~1418)과 의빈 권씨(懿嬪權氏, 1384~1457)의 외동딸인 정혜 옹주(貞惠翁主, ?~1424)에게 회향했음을 알 수 있다.

명문에는 문화 류씨와 금성 대군만이 시주자로 기록돼 있지만, 사리탑의 조성 당시 의빈 권씨와 정혜 옹주의 남편인 박종우(朴從愚, ?~1464)가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불사에 동참했을 것이다. 또한, 정혜 옹주의 빈소(殯所)에 세종도 사제(賜祭)했던 것으로 보아 왕실 차원의 후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1939년에 사리탑을 현재의 자리로 이건할 때 발견된 구슬 모양의 불사리(佛舍利) 14과(顆)는 사리를 위해 탑을 세웠다는 명문의 내용을 입증해 준다. 사리장엄구는 원나라에서 수입한 주름문청자항아리를 가장 바깥쪽 용기로 삼아 그 안에 금제구층소탑(金製九層小塔)과 수정사리병(水晶舍利甁)을 납입한 은제도금육각당(銀製鍍金六角堂)을 봉안한 구성이다.

의빈 권씨는 1422년(세종 4) 5월에 태종이 승하하자 곧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아침저녁으로 불법을 행할 정도로 불심이 깊었다. 비록 신료들의 반대로 세속의 삶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의빈 권씨는 일생에 걸쳐 독실히 불교를 믿었다. 태종이 승하한 지 2년 후인 1424년에는 정혜 옹주마저 요절했다. 의빈 권씨는 세종과 소헌 왕후 심씨의 여섯째 아들인 금성 대군을 맡아 양육하며 지아비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잊었을 것이다.

의빈 권씨 슬하에서 자란 금성 대군은 어릴 때부터 불심이 깊었고, 평생에 걸쳐 불사(佛事)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금성 대군은 1453년(단종 1)에 일흔이 된 의빈 권씨를 사가에서 봉양하겠다고 왕에게 청할 만큼 평생에 걸쳐 양모(養母)와 각별한 인연을 유지했다. 의빈 권씨를 향한 금성 대군의 효심은 아직 어린 나이였던 그가 사리탑에 시주하도록 이끌었을 것이다.

탑 안에 봉안한 후궁들의 모정(母情)

세조의 중창 불사 이후 수종사는 여성들의 기도처로서 특별히 중시되었던 것 같다. 특히 성종(成宗, 재위 1469~1494) 대(代)에는 수종사와 연이 깊었던 소혜 왕후 한씨(昭惠王后 韓氏, 1437~1504)의 비호 아래 사세가 커지면서 비구니 스님과 사족(士族) 여성들이 이곳을 찾아 여러 날에 걸쳐 재(齋)를 지내고 불사를 벌였다. 한편 소혜 왕후와 수종사의 인연은 그녀가 세자빈이었던 젊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는 수빈(粹嬪) 시절인 1469년(예종 1)에 도성 안 비구니 사찰인 정업원(淨業院)의 주지 이씨와 함께 수종사에 소종(小鐘)을 시주했다.



남양주 수종사 사리탑(사진 왼쪽, 조선 1439년)과 팔각오층석탑(오른쪽, 1493년경) 전경.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수종사명 범종, 조선 1469년, 높이 48.9㎝,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제공=emuseum



금동석가여래좌상, 조선 1479년 이전(1493년 중수), 높이 15.0㎝, 수종사(불교중앙박물관 기탁), 보물.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금동비로자나여래좌상, 조선 1628년, 높이 12.0㎝, 수종사(불교중앙박물관 기탁), 보물. 사진 제공=국가유산청

1493년(성종 24) 6월, 성종의 후궁인 숙용 홍씨(淑容洪氏, 1457~1510), 숙용 정씨(淑容鄭氏, ?~1505), 숙원 김씨(淑媛金氏, 1475 이전~1524 이후)는 국왕의 성수만세(聖壽萬世)와 소생 자녀들의 복수(福壽)를 기원하고, 왕대비 두 분과 중궁 및 세자의 수명장수를 빌며 옛 불상을 중수해 탑에 안치했다. 이 같은 내용은 1957년에 팔각오층석탑의 초층 탑신석 안에서 발견된 석가여래좌상의 복장(腹藏) 발원문을 통해 비로소 알려졌다. 세 사람의 후궁은 "어린 자식은 뼈와 살인 바 정이 어찌 도탑지 아니하랴[兒息骨肉 情所篤也]"는 구절이나, "모든 아들과 사위들이 잘 자라 건강하고 마음 편안하며 복과 수명이 더욱 높아[暨諸子甥〇保康寧 福壽增崇]"지길 바란다는 구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들을 향한 모정을 감추지 않고 발원문에 드러냈다.

이 복장 발원문의 말미에는 시주(施主)가 별도로 기록돼 있다. "숙용 정씨, 안양군양주, 태안군, 승복(淑容鄭氏 安陽君兩主 奉安郡 承福)"과 같은 식으로 본인의 이름을 먼저 적고 그 밑에 소생 자녀들을 태어난 순서대로 일일이 적은 것이 눈에 들어온다. 옛 불상을 중수하고 탑 안에 봉안해 얻는 공덕이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미 출가한 자녀 부부에서 아직 군이나 옹주로 책봉받지 못한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넣었을 것이다.

복장 발원문에 언급된 '석가여래 1구'는 실제로는 불감(佛龕) 안에 봉안된 채 발견된 금동석가여래삼존상에 해당하며, '관음보살 1구'는 파편으로 발견된 목조불감과 목조관음보살삼존상에 해당한다. 이 석가여래상의 바닥을 막은 은판 위에는 음각으로 '시주 명빈 김씨(施主 明嬪 金氏)'라 새겨져 있다. 태종의 후궁인 명빈 김씨(?~1479)는 태종 대부터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내명부를 지킨 왕실의 어른이자, 여러 불경을 간행하고 불상을 발원한 독실한 재가 신도였다. 이 석가여래좌상은 명빈 김씨가 평소에 기도를 드리고자 조성한 원불(願佛)이었을 것이다. 자녀가 없었던 명빈 김씨가 세상을 떠난 후 이 불상을 성종의 후궁들이 지니고 있다가 수리한 후 새롭게 점안(點眼)해 탑 안에 봉안한 것은 아닐까.

탑 속에 깃든 추선(追善)의 마음

수종사는 17세기에도 왕실의 기도처 역할을 이어갔다. 1628년(인조 6)에 소성정의 대왕대비(昭聖貞懿大王大妃)는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을 열어 기단 중대석 및 1층, 2층, 3층의 옥개석에 24존의 불상을 봉안하도록 했다. 소성정의 대왕대비는 곧 선조(宣祖, 재위 1567~1608)의 계비인 인목 왕후(仁穆王后, 1584~1632)이다. 그녀는 광해군(光海君, 재위 1608~1623)이 즉위한 후 아들인 영창 대군(永昌大君, 1606~1614)과 아버지 김제남(金悌男, 1562~1613)을 잃었다. 1618년(광해 10)에는 폐서인이 되어 딸인 정명 공주(貞明公主, 1603~1685)와 함께 서궁(西宮, 현재의 덕수궁)에 유폐됐다.

인목 왕후는 1623년(인조 1)에 인조반정으로 복위된 뒤에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희생된 일가족의 극락왕생과 살아남은 이들의 수명장수를 위해 자주 불사를 일으켰다. 수종사 팔각오층석탑에 봉안된 비로자나여래좌상의 대좌 바닥에 새겨진 명문에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마음에서 23존의 불상을 보탑(寶塔)에 안치했다고만 돼 있다.

명문에는 23존이라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24존의 불상이 발견된 것이 흥미롭다. 많은 숫자의 불상을 한꺼번에 조성하는 큰 불사를 일으킨 배경에는 아들인 영창 대군과 유명을 달리한 가족들의 명복을 비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당대 최고의 승려 장인 중 한 명인 화원(畫員) 성인(性仁)이 조성한 불상들은 삼등신의 아기와 같은 비례로 몸에 비해 머리가 크다. 둥근 얼굴, 살이 올라 통통한 뺨, 작은 입으로 미소를 지은 표정은 귀여운 인상을 준다. 이 불상군은 소조불과 목조불이 주류를 이루던 17세기, 왕실 여성의 재정적 지원과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조성된 다수의 소형 금동불상으로서 중요하다. 또한 선대에 불상을 봉안했던 석탑을 열어 그 안에 추가로 불상을 봉안했다는 점에서 영험한 왕실 기도처로서 수종사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동아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재구매율 1위로 입증한 건강지킴이' 오행컬러패치 2025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하나사면 하나를 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조상들을 위하는 게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백종 천도재를 올려야 하는지

질문 조상님 천도재를 몇 차례 지냈는데도 해마다 촛불재니 백종 천도재를 올려야 하는지요.

답변 우리가 왜 밥을 먹고 또 밥을 먹습니까? 아침 먹었으면 됐지 점심 저녁까지 먹고, 그 이튿날은 또 왜 먹습니까? 보십시오. 아침 쇳송에 부모의 은혜를 갚고, 국왕의 은혜를 갚고, 만물의 은혜를 갚고 이 모든 생물의 은혜를 다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듯이 낳아서 길러서 이렇게 성장시켜 놓은 부모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낳아서 기르느라고, 이 도리를 잘 배우지도 못한 채 그냥 허덕지덕 허덕지덕 하다가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이 도리를 알고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천도를 시킨다는 것은 조상들이 다시 짐승으로 태어나지 말고, 현재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죄 석방이 되게끔 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같이 살았으면 개로 태어나야 하고 독사같이 살았으면 독사로 태어나야 할 텐데, 그것을 무마시켜서 바로 다시금 인도환생하라고 천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뒤에는 또 뭐가 따르느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도리를 만나서 이 공부 하면서 부처님과 한자리를 하시게 해 드리기 위한, 그 은혜를 갚고 묵은 빚을 갚는 그런 것이 즉 재(齋)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린애를 낳아 놓기만 하면 다 사회인이 됩니까? 길러서 가르치고, 가르쳐서 다 정상으로 만들어 놔야만이 그게 어른입니다, 이제. 그럴 때까지는 해야죠. 그러다 보면은 또 끝이 나요. 그러곤 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했던 것이 또 부모가 돼서 끝이 나고, 자식들이 또 그렇게 해야 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름해서 효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 증조모는 천도를 시켰는데 왜 그러냐? 윗대 조상들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천도를 시켰다면 천도된 분들은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깨쳐서 부처님 한자리를 했다 할지라도, 천도가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시기가 있고, 위에 올라가 앉아서 '아! 저놈은 참 착하구나.' 하고 내려다보는 시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뭐, 내 부모만 부모입니까? 정말 부처님 자리 한 자리를 했다 할 때는 그렇게 공을 들이고 촛불재를 하고, 백종을 지내고, 사월초파일에도 등 달고 다 이렇게 조상들을 위하는 게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림 · 최주현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가면 하나로 돌아가니까, 전부 일체제불과 더불어 일체 중생이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자식 내 자식 따질 수가 없고, 네 부모 내 부모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다면…, 지금 높은 판사로 됐다면, 내 자식들만 자식이라고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무죄로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기가 있고, 아래서 허덕거리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시기가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천도재를 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지 말고 인도환생하여 태어나게 해 주소서.' 하는 겁니다. 또 부모가 인도환생이 된 후에도 이런 법을 알아서 정말 한자리 하도록 원하는 그 자식들의 은혜를 갚는 마음이 아주 끝 간 데 없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밥 한 번 먹고는 어떻게 밥을 또 안 먹습니까?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알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유전, 인과, 업보성 등의 문제

질문 큰스님께서는 유전성, 인과성, 업보성 등의 문제를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런 문제들을 대처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답변 인간에게는, 즉 내 몸속에는 수억 겁을 거쳐 오면서 누적된 다섯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과거로 해서 미래로 해서 현재로 다시 들어오고, 또 돌아서 다시 들어오고, 또 돌아서 다시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똑같이 돌아오긴 하는데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천차만별의 마음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대로 모습을 쓰고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몸속에 다섯 가지가 주둔하면서 세계가 벌어져 있습니다. 지구에 세계가 있듯이 한 몸뚱이 속에 그냥 세계가 살고 있어요. 세계가 살고 있는데 그 세계를 다스리는 주동자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섯 가지가 의식적으로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섯 가지의 문제라는 것은 인과성, 세균성, 영계성, 업보성, 유전성을 말하는데 인과성은 과거로부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인과를 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균성을 많이 맺어 놓은 사람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해쳤다거나 살생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된 인연들이 많죠. 세균성이라고 하는 것도 살생과 더불어 원한의 인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뱀 소굴에서 뱀들을 때려잡는다거나 이랬다면, 임신을 하지 않았어도 꼭 그것이 자식들한테로 대치가 되거든요. 그거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균성의 원리가 그러하니까 그렇게 세균성이 오는 거죠. 그게 그냥 착 와서, '내 자식들을 모두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네 자식 때문에 이렇게 좀 돼 봐라.' 하고 여지없이 유전이 되는 거죠, 모두가.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것이 오는 이치는 없어요, 절대로.

또 영계성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속에도 이 문제가 다 주둔해 있는 데다가, 나에게 주인이 없다면 바깥에서도 마구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주장심을 주인으로 삼아서 다스려 나가지 않는다면 주인이 없는 집이 되죠. 바깥으로 찾고, 바깥으로 매달리고, 바깥으로 기도하고, 바깥으로 삼천배 절하고 모든 걸 바깥으로만 하니까요. 자기 안에 주장자가 본래 있는 건데, 자기가 그것을 세워 놓지 않고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집이 돼서 안에서 마구 끌어들이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것도 끌어들이고 안에서도 일으키고 하는 것이 마치, 엄마와 아버지가 어디 나가면서 애들에게 "갔다 올 때까지 놀아라." 하니까, 친구들 데려다가 그냥 막 뛰어놀고 온통 집안을 다 흔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들 안 나가는 것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것이 오는 이치는 없어요, 절대로

☞ 19면에서 계속

도 있거든요. '아, 이 집에 오니까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좋구나. 그러니까 내 집을 만들어야겠다.' 이런다면 정신 분열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집이 하나니까 주인도 하나여야 되는데, 딴 주인이 거기서 산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기 주인이 자기 심부름하는 자기 시자를 자꾸 리드해 나가야 될 텐데, 주인이 또 하나 생겨 가지곤 몸을 자꾸 끌고 다닌단 말입니다. 먹지 말라, 가지 말라, 뭐, 갖은 참견 다 하고 말입니다. 그 영계성이란 것이 이런 도리를 알아서 죽은 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구잡이죠. 사람을 이리로 가랬다, 저리로 가랬다, 먹지 말랬다, 나가지 말랬다 온통 야단법석을 하니까 이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심부름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신 분열이다 미쳤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안에서 주인이 그렇게 살아서 그런 것인데 병원에 데리고 가 봤던들 뭘 하며, 약을 먹여 봤던들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하죠. 물방울 두 개를 하나에다가 붙이면은 물방울 하나가 되지 둘이 되지 않는다. 오만(五萬)의 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로 해 놓으면 그냥 영이지, 오만 개의 영이 숫자대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영 자체도 공했다고 했으니까 주인에다가 모든 걸 맡기고 하나로 뭉쳐서, 한 사람이 다스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 분열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인과성이다 하는 것도, 부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인연에 따라서 그게 간단치만은 않은 겁니다. 많이 들어서 다 아시는 얘기죠. 시자를 데리고 가시다가, 종이 떨어진 거를 주워 보라고 하셔서 그걸 주우니까 "그 냄새가 어떻더냐?" 하고 물으셔서 "향 쌌던 종이입니다." 했습니다. 또 가다가 새끼오락지 떨어진 거를 주워 보라고 하셨는데 그건 비린내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그건 무슨 냄새가 나느냐?" "비린내, 썩은 내가 납니다." "그러면 한번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라. 너희들도 살아나감에 있어 이 향을 쌌던 종이를 따르려느냐, 썩은 생선 묶었던 새끼오락지를 따라가려느냐?" 하셨던 거죠.

사람이라면 보고 듣고 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본래 알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본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있죠. 그런데 알면서도 썩은 새끼오락지를 따라간다면 그게 악종(惡種)의 인연이 되는 겁니다, 깡패 소굴에 들어가면은 벗어날 길이 없듯이. 또 향을 쌌던 종이, 향내 나는 향수라고 그러죠. '향수의 바다' 이러죠. 우리 몸에도 물이 있지만, 향수해(香水海)같이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 것이 전체 향수라면, 향수를 따르는 향수라면 얼마나 그게 즐겁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인과라는 자체가 바로, 악종의 인연이냐 선종의 인연이냐 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속에서 악종의 인연을 많이 맺은 사람들은 지금 자식들로 인해서 속도 썩거니와 불구인도 나오고 별의별 일이 다 나오는데, 이 인과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테냐는 얘깁니다. 선종으로 인연을 많이 맺은 사람들은 선종을 낳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극진하고 말을 잘 듣고, 그 모든 것을 속 안 썩이고, 그냥 수순하게 살아 주는 그런 가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갖다 준 게 아니라 바로 내 속에 그렇게 주둔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그렇게 주둔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과성에 연결이 돼서, 고리가 고리를 물고 나오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 고리가 고리를 물고 나오는 겁니다, 종자가 그 종자니까. 그러니까 선종이다 악종이다 하는 인연을 자꾸 만든다면 아니 되죠, 그거는.

유전성이라는 문제도 살생으로 인해서 많이 연결되니까 구분지 삼은 살생이 원인이죠. 그러나 이 유전이라는 것은, 만약에 아버지가 속병을 앓았다 이러면 그것을 대치해서 자식이 또 속병을 앓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그렇게 남을 애타게 꼭 그 값어치대로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부모가 치르고, 그 대가를 또 자식이 치르게 내려간단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개미가 개미를 낳지 딴 종자를 낳을 리가 없다는 얘기죠. 소가 소를 낳고, 말이 말을 낳고, 토끼가 토끼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지 딴 거 낳는 것을 못 봤어요. 돌연변이가 있다면 딴 거를 낳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내려오면서, 지금 백팔 염주에 염주알을 꿰어 놓은 것처럼 자기의 그 종자가 종자대로 그렇게 꿰여 있죠. 이 세상 이치도 우주 전체를 염주알 꿰 놓은 것처럼 돼 있어서 우리가 그 염주 바깥으로는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유전성이든지 영계성이든지 세균성이든지 업보성이든지 인과성이든지 이 공부를 안 하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보성' 하면 오간지옥성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차원이 낮고 낮아지면 인간에서 좌천이 되는 거죠. 인간에서 좌천이 돼서 기어 다니는 벌레로 땅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오간지옥이에요. 무당들이 칼을 들고 바가지에서 죽 쑤은 것을 던지면서 하는 소리 들어 보셨어요? "이걸 먹고 싹 물러나라. 그렇게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내, 밥내도 못 맡게 지옥성에 다 넣는다." 하하하.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거와 같이 이거는 인간이 돼야 국내, 밥내를 맡지 어떻게 국내, 밥내를 맡습니까, 땅속에서 사는 벌레가? 만약에 땅속으로 다니고 굴속에서 살고 그러는 살모사나 그 뭐, 뱀 종류라든가 벌레 종류라든가 이런 거라면 그냥 국내, 밥내도 못 맡죠. 그게 바로 오간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결정코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칼로 썰어도 썰어지지 않고, 하하하, 아주 굳세고 아주 늠름하고 여여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름이 부처라 이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속에 모두 주둔해 있는 거를 어디 가서 빌고 어디 가서 찾습니까? 어디 가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합니까?

오신통을 컴퓨터라고 해도 좋다고 내가 항상 말하죠. 앞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주둔해 있으니, 거기서 나오는 대로 다시 입력해라 이 소립니다. 그래야만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는 겁니다. 업보성이라든가 영계성, 유전성, 세균성, 인과성 이 자체가 몽땅 차례차례로 나오는 것을 내가 닥치는 대로 거기다 놓으니까 차례차례로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나가면 자손 대에도 그렇고, 다시 바뀌지는 거죠, 아주 그냥. 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바뀌지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삶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져요

질문 요즘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온갖 자연재해 등으로 수없는 사람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 가는 현실을 볼 때 사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것은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드렸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지금 물건들이 전부, 그 종이나 비품이 많이 나간다고 합시다. 헌쇠든지 넝마든지 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죠. 종이도 그렇고. 그것이 재생돼서 나가죠? 많은 게 재생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금도 반지가 됐다가 또 가서 팔려면 금방으로 가져갑니다, 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도 재생이 돼서 다시 나옵니다. 귀고리도 해서 나오고 팔찌로도 해서 나오고 반지로도 나오고, 이렇게 다른 물건이 돼서 다른 이름이 돼 가지고 나오죠. 곧 다른 이름이 돼 가지고 다른 물건이 돼 가지고 나올 동안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서 인제 수술을 할 때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자기 수술하는 걸 보고 있을 때가 있죠? 그게 죽는 게 아닙니다. 재생돼서 나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서도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최고의 바로 고등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고의 인간이죠.

그리고 영혼이라는 말 자체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대롭니다. 그 생명 자체의 근본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습니다. 의식 자체는 바로 영혼이라고도 하고 혼백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식 자체입니다. 불성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불성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의식 자체는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지만, 즉 말하자면 우리가 기름 또는 윤전수, 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 허망하지 않다 하는 것이 옷이 허니까 아무 데나 앉아도 그냥 괜찮거든요. 그게 늙고 그랬다고 해서 이 옷이 헐었다고 그러는데요, 아무 데나 앉아도 그냥 뭐, 흙 묻었다고 걱정할 거 없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 옷 입는 거보다 헌 옷 입는 게 아주 좋죠. 그래서 아무리 노인네가 늙었어도 허무하지 않은 겁니다. 늙었다는 것이 이게 옷이 헐었다는 얘긴데 이왕 늙어 버렸으니 아무 데나 앉은들 누가 어떠랴 이러고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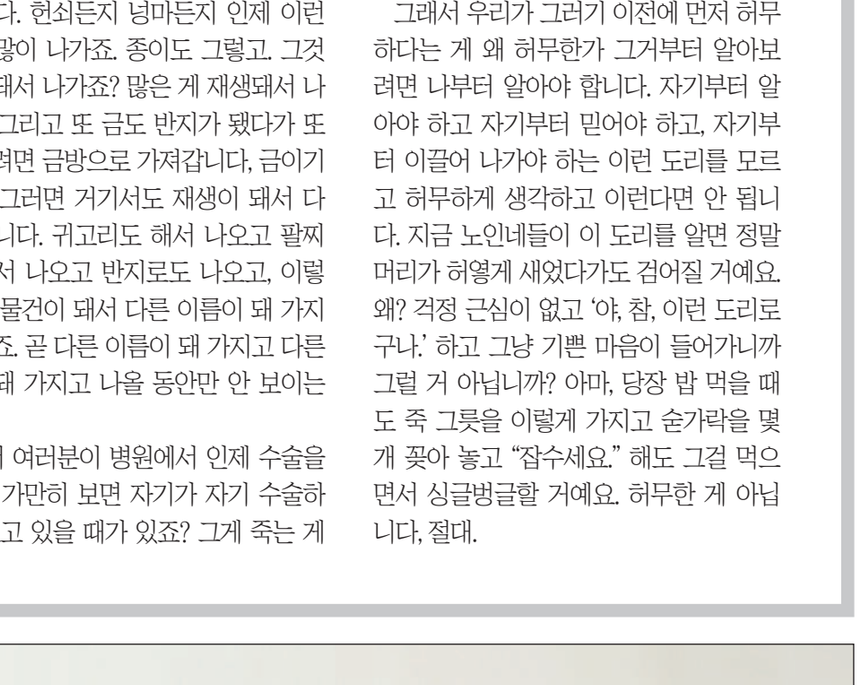
참 그 마음이 지혜롭고 크면 이 우주 안에 그 마음이 꽉 찼는데 뭐가 부러울 게 있으리까. 그러니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은 밥 굶을 필요도 없고 용돈 안 줄 사람도 없어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허무하게 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해 보십시오. 그래서 늙어지면 뭐, 그, 허무하다고 그러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허무하다는 소리 더 잘해요. 노인네들은 외려 덜합니다. 어째 거꾸로 됐는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이전에 먼저 허무하다는 게 왜 허무한가 그거부터 알아보려면 나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기부터 알아야 하고 자기부터 믿어야 하고, 자기부터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이런 도리를 모르고 허무하게 생각하고 이런다면 안 됩니다. 지금 노인네들이 이 도리를 알면 정말 머리가 허옇게 새었다가도 검어질 거예요. 왜? 걱정 근심이 없고 '야, 참, 이런 도리로구나.' 하고 그냥 기쁜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아마, 당장 밥 먹을 때도 죽 그릇을 이렇게 가지고 숟가락을 몇 개 꽂아 놓고 "잡수세요." 해도 그걸 먹으면서 싱글벙글할 거예요. 허무한 게 아닙니다, 절대.

유전성이든지 영계성이든지 세균성이든지
업보성이든지 인과성이든지
이 공부를 안 하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㊺ 육군비구를 제재한 부처님, 학교 폭력(1)

피해 아동에 "잘못 없다"는 확신 줘야

학교 폭력은 언제나 한쪽의 문제가 아니다. 어제까지 웃음 많고 인기 있던 아이가 오늘은 가해자로 불리고, 조용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가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돼 홀로 고통 속에 빠진다. 교실 안에서는 가해와 피해의 경계가 순식간에 바뀌며 그 속에서 아이들은 깊은 상처를 받는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피해 아동의 자리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초등학교 5학년 한 여자아이는 친구들에게서 "넌 왜 그렇게 행동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이 지나자 아무도 말을 걸어 주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남겨졌다. 아이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작은 따돌림이 곧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두려움으로 이어진 것이다.

학교 폭력을 말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아이가 달라서 당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 아동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시선이다. 아이들이 폭력을 당하는 이유는 없다. 폭력은 피해자의 성격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가해자가 힘을 과시하거나 집단이 결속하기 위해 만들어 낸 구실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왜 그 아이가?"라는 질문 대신 "왜 아무도 막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피해 아동의 심리는 단계적으로 무너진다. 두려움과 불안이 일상에 스며들고 곧 자존감 저하와 자기 비난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고립감과 외로움이 깊어지고 결국 우울과 무기력 속에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품게 된다. 또래와 함께 있어도 마음은 늘 긴장 속에 있으며, 누군가 웃는 소리만 들어도 '나를 비웃는 건 아닐까'라는 과잉 경계가 불안을 더 키운다. 이 고통은 단순한 일시적 반응이 아니라 성장 과정 전체에 남아 관계 맺기와 미래를 흔들어 놓기도 한다.

따라서 피해 아동에게는 무엇보다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안전한 공간을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전문 상담과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다시 교실로 돌아가더라도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피해 아동은 또한 작은 신호로 도움을 요청한다.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복통, 반복되는 멍, 잦은 눈물, 등교 거부나 성적 저하, 학교 이야기를 회피하는 모습까지 모두가 도움의 신호일 수 있다. "괜찮다"라는 말 뒤에 숨겨진 목소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

피해 아동을 지켜 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처가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즉시 알리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의 말과 행동, 몸에 난 상처를 세심히 관찰하고 작은 변화라도 날짜와 상황을 기록해 둬야 한다. 증거를 바탕으로 담임 교사, 학교 전담 경찰관, 교육청 신

폭력, 가해자 힘 과시 · 집단 결속 구실

날짜 · 상황 기록해 공식 기관에 알려야

고센터 등 공식 기관에 알려야 한다. 피해 아동 혼자 문제를 감당하도록 두지 않고, 제도적 보호망을 가동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가정에서는 아이를 다그치거나 원인을 추궁하지 말고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확신을 반복해서 전해 주어야 한다. 또래 집단에 복귀하도록 성급하게 재촉하기보다 안전한 대안 공간(상담실, 지역 아동센터, 신뢰할 수 있는 친척 집 등)을 마련해 아이가 숨 쉴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교는 가해 학생을 징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아동의 자리 배치, 등·하교 안전 동행, 보호 교사 배정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담 전문가와 연계해 피해 아동이 스스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아이에게 "너는 잘못이 없다"는 확신을 주는 일이다.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아이가 두려움과 분노를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들어주어야 한다. 이후 전문 상담과 치료를 통해 회복의 과정을 함께 걸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간이 흘렀다고 상처가 저절로 아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꾸준히 곁을 지켜주고 지지할 때 아이는 다시 세상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

부처님 당시에도 공동체 안에는 늘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이 있었다. 바로 '육군비구(六群比丘)'라 불리던 스님들이다. 이들은 출가자의 본분을 저버리고 무리를 지어 다니며 갖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수행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공양을 받을지, 마음에 들지 않는 스님을 어떻게 몰아낼지만 몰두했다. 때로는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고, 때로는 다른 이들을 상처 입히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의 행동은 결국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었지만 동시에 제재와 교육의 대상이 됐고 새로운 계율이 제정되는 계기가 됐다. 즉, 문제를 일으킨 이들은 꾸지람과 지도를 받아야 할 존재였으며 공동체는 그들을 단호히 다루면서도 제도를 정비해 전체가 더욱 건강하게 설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일탈이 공동체 속에서 오래도록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었고 공동체는 그 잘못을 바로잡는 데 힘을 모았다.

학교 폭력 역시 다르지 않다. 가해자는 분명히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 그들은 제재와 교육의 대상이 돼야 하며, 폭력의 책임은 언제나 폭력을 행사한 쪽에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피해자가 소극적이어서, 혹은 눈에 띄어서"라는 식의 왜곡된 인식을 갖기도 한다. 이는 잘못된 시선이며, 피해 아동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긴다. 아이가 다른 점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존중받아야 할 개성이자 다양성이지, 폭력의 구실이 될 수 없다.

*현대불교신문 부산주재기자이자 가족상담전문가로 지역 가족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건강 365

㊻ 치매

신체·인지·사회활동 유지로 예방·관리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다양한 후천적 원인에 의해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의 인지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의 특정 질병명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의 집합을 일컫는 말입니다.

치매 증상의 대표적 원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전체 치매의 약 60~70%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 혈관성치매, 루이체치매, 전두측두엽치매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 대다수는 노화와 관련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65세 이상에서는 약 10%가 치매를, 80세 이상에서는 4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중 한 명은 치매를 앓을 정도로 흔한 병이며,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람들은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치매의 증상

정상적으로도 나이가 들면서 건망증과 같이 사소한 것을 깜박 잊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은 건망증과 구별이 쉽지 않지만, 치매에서는 단순한 기억력의 장애뿐만 아니라 지남력(시간·장소·사람을 올바르게 인지하는 능력)이나 언어능력, 판단력 등 인지기능 전반에서 장애가 나타나며 성격 변화와 망상과 같은 정신행동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저하되면 얼마 전 나눴던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한 번 해 놓은 일을 잊어버려 다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언어장애로 인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물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력 저하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어에 대한 이해력이 저하되는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방향 감각이 상실돼 자주 가던 곳을 가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계산 능력이 저하돼 이전에 잘하던 돈 관리를 어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치매의 진단 및 검사

치매의 다양한 원인 중에서 일부는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계 감염, 수두증, 양성 뇌종양, 갑상샘 질환과 같은 대사성 질환 등 완치할 수 있는 치매가 전체 치매의 약 10~15%를 차지하고 있어, 그 원인 질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츠하이머병처럼 완치가 어려운 퇴행

65세 이상 약 10%, 80세 이상 약 25%

퇴행성 치매 조기 치료 진행 속도 늦춰

14가지 위험요인 관리 시 45%까지 예방

성 치매의 경우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병이 다양하므로 어느 한 가지 검사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혈액 검사 등 전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인지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심리검사,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보기 위한 뇌영상 검사 등을 종합해 진단하게 됩니다.

치매의 관리

치매는 서서히 진행하고 유병기간이 길어서 일상에서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적절한 관리를 통해 병의 진행을 늦추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초기 상태를 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를 자극해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하는 다양한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지기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인지기능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의 운동기능 유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치매의 예방

치매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병입니다.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것으로 치매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치매의 위험요인과 예방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란셋(Lancet) 위원회'에서는 열네 가지 치매 위험요인을 관리하면 최대 45%까지 치매를 예방하거나 발병을 늦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은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위험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흡연과 지나친 음주는 반드시 피해야 할 치매의 위험요인입니다. 청력 손실과 시력 손실도 치매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력·청력을 보호하고 검진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중년기부터 지속적인 인지활동과 신체활동을 하고 노년기가 됐을 때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치매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머리 외상에 주의하고, 우울감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치매 예방 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활동, 인지활동, 사회활동을 유지하면 치매는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서지원
동국대일산병원 신경과 교수



전법 일기

싫어하는 사람과 살아가야 하므로

올해 8월 7일부터 10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국제불교 박람회'의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다. 부산국제불교박람회사무국에 따르면, 7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1홀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나흘간 약 10만 명의 관람객이 박람회 현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장소가 2배로 늘었고, 참가 부스 또한 전년보다 176곳 증가한 375개 부스로 구성된 박람회는 불교공예, 건축, 의복, 식품, 수행, 문화산업, 차(茶), 전통미술 및 현대미술 등 불교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행사로 이뤄졌다.

특히 스님과 차를 마시며 고민 상담이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스가 부산불교방송 부스에 마련돼 큰 인기를 얻었다. 희망자가 너무 많아 웨이팅 머신을 비치하고 예약을 받았는데, 부산불교방송 특보단 소속 스님들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교대로 돌아가며 상담을 진행했다. 나 역시 나흘간의 행사 기간 중 이틀간 상담을 진행하며 박람회에 방문한 불자분들과 청년분들의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

상담 중 유독 많이 들은 고민은 '직장 내 동료들과의 불화'에 대한 것이었다. "회사에서 너무 보기 싫은 상사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나 "진급 경쟁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같은 고민이 많았다.

미운 사람과 직면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당할 때의 고통[원증회고怨憎會苦]이 인간이 겪는 여덟 가지 고통[팔고八苦] 중 하나라고 경전에서도 이야기할 정도이니, 당사자에게는 보통 깊은 고민이 아닐 것이다.

〈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 보수지연분(寶樹池蓮分)에 이르기를, "저 세계를 어째서 극락이라 하는 줄 아느냐? 그곳에 있는 중생들은 아무 괴로움도 없이 오직 즐거움만 있으므로 극락이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같은 경 왕생발원분(往生發願分)에서는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극락에 태어나기를 발원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그와 같이 으뜸가는 착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밝혔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본래 모습은 괴로움이 일상다반사이고 즐거운 일은 드문 사바세계이다. 오죽했으면 '고통바다[고해苦海]'라고 표현했을까. 따라서 생각의 출발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내 주변에 싫은 사람, 싫은 일들이 있는 것이 특별히 나쁜 상황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공통의 문제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상사는 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일까'에서 '그 상사도 혹시 나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나'로 생각을 확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완벽히 조성된 극락세계로 내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으뜸가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사는 세상이 한발 더 극락세계에 가까워진다. 모두가 서로에게 선량한 사람이 되는 극락세계를 이 중생세계에 만들어 보자는 큰 외침이 부처님 말씀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번 불교박람회도 잘 회향하였다.



눌은 스님 전 범어사 포교국장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⑲ 우리 시대의 생태 위기

수단 너머 생태로의 세계관 전환 시급

2025년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다. 역대 최고의 기록들이 잇따라 갱신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가뭄과 홍수, 대형 화재와 폭염, 기온 상승과 더불어 야기되는 해수면의 상승 등은 기후 변화 단계를 넘어, 기후 위기를 직접 체감하게 하고 있다. 이 기후 위기의 국면들은 생태계의 교란과 위기로 이어진다.

생태란 생명체들의 다양한 모양과 상태를 뜻하는 'ecology'의 번역이다. 이 말은 중심을 뜻하는 'core'를 에워싼 'envelope'에 대한 이론 또는 진리를 의미하는 'logos'의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e-co-logic'에서 도출된 'ecology' 개념은 생명체를 둘러싼 환경을 생태로 받아들이라고 요청한다. 이로써 생태와 환경은 동의어가 된다. 즉, 생태적 태도는 지구와 기후에 대한 책임감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개별 생명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생태보살의 책임이 대승보살의 실천과 연결됨을 보여 준다.

지표면이 갑자기 가라앉는 싱크홀은 땅의 요소와 관계가 있다. 폭우와 홍수, 가뭄과 사막화는 물의 요소로 인한 것이다. 대형 산불과 화산 폭발, 기온 상승은 불의 요소로 인한 것이며, 태풍과 토네이도 등은 바람의 요소로 인한 문제이다. 이렇게 기후 위기의 문제를 지수화풍(地水火風)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분류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요소환원주의적 태도로서 대승적 관점이라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문제들을 편의상 분류해 대처하기에 좋지만 폄하적 의미의 소승적 태도일 뿐이다.

〈원각경〉에서는 '깨달음이 뚜렷하고 밝은 까닭에 마음의 청정함이 나타나고, 마음이 청정한 까닭으로[覺圓明故 顯心清淨 心清淨故]' 궁극에는 '허다한 세계가 청정하기 때문에 마침내 허공을 다하고, 삼세를 두루 감싸기까지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하여 동요하지 않는다[多世界清淨故 盡於虛空 圓裹三世 一切平等 清淨不動]'고 설한다. 보안 보살의 질문으로 시작된 경문은 깨달음에 의지해 마음의 청정성을 보장받고 과거·미래·현재의 삼세까지 감싸라고 권한다. 이러한 태도는 요소환원주의를 너머 그 이상의 생태적 실천을 요구한다.

경제 편의주의, 생태 위기 초래

조급함이 부른 도구주의적 착취

마음 오염 막는 것이 생태 수행

우리 시대의 생태 위기는 하이테크닉에 기반한 과학 기술의 남용과 경제적 착취의 오용에서 비롯됐다. 이제 생태적 질문은 심성이나 불성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즉, 위기의 끝자락에서 인간과 마음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최종 피해자의 자리에 원인 제공자가 존재한다는 딜레마일 뿐, 다른 문제는 아니다. 이 점에서 선어록의 시선이 재고되는 것이다. 온 세계의 청정은 마음의 청정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생태적 선수행의 실천으로는 단지 오염되는 것을 막아[但莫汚染] 내기만 하면 된다!

이를 위해 현재 자리에서 처연히 버티며, 새삼 닦을 필요가 있는가[道不用修]를 물어야 한다. 현대인의 위기는 마음이 오염돼 청정하지 못한 까닭이다.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온 세계를 도구주의적 입장으로 착취하며 개발한 탓에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을 수단으로 여기는 경제적 편의주의가 처참한 생태 위기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경제란 'eco'에 이어 규범과 가치를 뜻하는 'nomos'를 놓는 자세이다. 'economy'는 가치 체계로 환산하는 태도임을 감안할 때, 도구와 수단의 세계관 너머 생태 'ecology'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돼야 사회 권익 향상된다

8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산재로 세상을 떠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추모재가 봉행됐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 보장은 물론 차별적인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추모재에서 영단에 오른 이들은 올해 근무 현장에서 온열과 산재, 괴롭힘 등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7명의 이주노동자들.

자리를 마련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는 것은 고용허가제를 비롯해 그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이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현행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에서 종사해야 한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고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재고용이나 이직이 불가능하다. 사업장의 고용 편의만 보장된 것이다.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지며 인권 유린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행정 조치 변경은 없는 상태다.

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벌써 21년째다. 그러나 현실은 20여 년 전과 다르지 않다. 최근 전남의 한 사업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괴롭히는 영상이 퍼지며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지만, 현실은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노동자가 겪는 일들은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경험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환경과 인권 의식을 보여 주는 거울이다. 맞물려 돌아가는 세상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전체 노동자의 권익도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수십만 이주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인정받아야만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불상 예배’하듯 ‘인간 예배’를

현불논단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근래 달라이라마가 환생 후계자 문제로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 또 다른 이야기인데, 작년으로 기억된다. 달라이라마께서 무릎 치료를 위해 미국에 입국했다. 그런데 달라이라마가 머물고 있는 호텔 정문 앞에서 티베트인들(미국 거주)이 오체투지하고 있는 모습이 뉴스로 방영됐다. 어떤 티베트인은 호텔 주변을 돌면서 염주를 돌렸다.

뉴스 영상을 보면서 티베트인들의 불심에 감동했다. 물론 티베트 불교에서는 현 14대 달라이라마를 살아있는 관음의 화신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겠지만, 달라이라마만이 아닌 모든 승려들에게 절을 한다.

하여튼 똑같은 인간에게 순수하게 예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와야 되는 법이다. 인도의 성자 라마크리슈나의 제자 비베카난다도 이런 말을 하였다.

“여러분들이 신(神)이며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한 신의 사원이며, 저는 사찰 내에 있는 상(像)·성전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들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안되는 유일한 신은 인간의 몸에 머물고 있는 인간의 영혼입니다. 모든 중생이 그렇지만 인간이 최고의 사원이며, 타지마할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체라는 사원에 있는 신을 보자마자 존경이 앞서게 되고, 그 사람 속에 신을 보자마자, 그 순간에 우리들은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진정한 예배는 사찰의 불상, 교회의 예수상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보통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뜻이다. 〈법화경〉에 인간에게 예를 올리는 부분이 있다. 제20 ‘상불경보살품’이다. 상불경보살은 비구니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느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말한다.

만인을 예경하는 상불경보살
‘사람=부처’ 담은 법화경 중요
타인 존중해야 나도 존중 받아

“나는 그대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대는 반드시 앞으로 부처님처럼 훌륭한 성자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예를 올립니다[成佛].”

이 말을 들은 비구들이 꾸짖고, 욕설을 퍼부어도 상불경보살은 한결같이 어느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부처가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도망치면서면서도 외친다. 〈법화경〉이 동아시아불교에서 중요시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부처’로 본다는 뜻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누구든 동등한 인간이요, 똑같은 생명을 가진 귀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사상에도 수없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인간 예배이다. 싯달타 왕자의 출가는 브라마니즘과 카스트제도의 반발로 시작됐다. 부처님은 성불 후 전법을 펼칠 때도 사람은 신분계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금수저를 물고 나온 가문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되며, 인격과 행위로 그 사람을 평가하라는 것이다. 불교는 이렇게 모든 인간이 고귀하다는 점을 기본 테제로 한다.

이제까지 서술한 내용을 문장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 행동으로 옮겨보자. 자신도 누군가로부터 푸대접 받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그러니 자신에 견주어 타인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자. 자신이 대접 받고 싶어 하는 만큼 남을 대접하자. 자신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다면, 타인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자. 자기 자신이 귀하듯이 남도 귀한 법이다.

법당에 모셔진 불상에 예배하듯 진정 살아있는 인간에 예를 올리는 것!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자에게 간곡히 하고픈 말일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모순’

세간과 출세간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얼마 전 햄버거를 사러 들어간 패스트푸드점에서 ‘고객 눈높이 맞춤형’이라고 적혀 있고 휠체어 그림이 붙어 있는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기존 기기보다 낮게 만들어져 휠체어 사용자나 키 작은 사람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였다. 드디어 키오스크도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추기 시작했구나 싶어 순간 반가움이 앞섰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매장 입구 앞에 턱이 있어 휠체어 사용자는 애초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것이다. 혹시 다른 출입구가 있나 살펴보았지만, 매장에는 단 하나의 입구뿐이었다. 키오스크는 있었지만, 정작 장애인 당사자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어설픈 선의는 다른 공간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대형마트는 휠체어 전용 쇼핑카트를 준비해 두었지만, 냉장·냉동코너는 단방향 구조로 설계돼 휠체어가 들어가기 힘들다. 간신히 들어간다 해도 통로가 좁아 원하는 상품을 고르기 어렵다. 겉으로는 배려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이용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상점의 출입구 경사로가 45도를 넘어 급경사인 경우가 많고, 출입구에는 경사로가 잘 되어 있지만 출입구 문을 들어서면 다시 높은 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어설픈 선의로 포장된 시설 많아
장애인 편의는 시혜가 아닌 권리
불교계도 편의시설 전반 관심을

사찰에서도 순례를 하다 보면 편의시설의 모순을 왕왕 볼 수 있다. 몇 년 전 ‘장애인이 가기 좋은 절’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의 한 사찰을 방문했다. 스님께서 반갑게 맞아 주며 “엘리베이터가 있어 장애인이 법당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안내해 주셨다. 그런데 막상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니 법당 앞에는 두 개의 계단이 있었다. 순간 난감했지만 스님께 계단 높이에 맞는 조립식 경사로를 제작해 사용하시면 된다고 알려드렸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바른 안목과 올바른 기준으로 존재해야 한다. 설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누구나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본질이다. 휠체어 사용자가 턱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어야 하고, 좁은 통로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 편의시설은 오히려 차별을 심화하는 도구일 뿐이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배려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조건이다. 턱없는 출입구, 충분한 이동 동선, 손이 닿는 높이의 진열대와 기기 등 이것들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함께 사는 사회라는 말할 수 있다.

장애인을 향한 배려가 흉내가 아닌 진정성이 담겨야 한다. 형식적 설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의 불편을 해소하는 변화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社 說

조세이탄광 유해 수습, 韓日불자 나서자

일본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골로 추청되는 뼈가 발견됐다는 낭보가 현해탄을 넘어 전해졌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모임(이하 새기는회)은 8월 25일 오후 2시 9분경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당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음을 관음종에 알렸다.

1942년 2월 3일 해저탄광인 일본 우베 탄전의 조세이 탄광에 바닷물이 유입돼 침수 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노동자 4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가 난지 80여 년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깨어있는 일본 시민이 중심이 돼 ‘새기는회’를 결성해 1991년부터 위령비 건립과 유해 발굴 및 송환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새기는회의 고군분투에 힘을 보태고 있는 곳이 한국불교다. 관음종은 2017년부터 조세이탄광 위령재와 유해 발굴 및 송환 사업을 종단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해 발굴을 위한 잠수조사는 새기는회의 시민 모금과 관음종의 지원으로 이뤄져 왔다. 유해로 추정되는 뼈들이 확인된 만큼 한일 양국은 잠수조사 등 유해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불교도들도 양국의 화합과 자비 실천을 위해 유해 발굴 및 송환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의 유해가 돌아오길 바란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대연대의 출발점 되길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갈 다채로운 법석을 준비했다.

불교의 대중화와 포교 영역 확장을 위해 전국 교구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 통합과 행복을 기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 점에서 더욱 뜻깊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시민과 함께하는 선명상 페스타다. 9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불자들만의 자리가 아닌, 국민 누구나 참여해 명상과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준비된다.

이와 함께 전국 불자들이 동참하는 선명상 실천대회는 한국불교가 나아갈 미래 백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명상을 통해 개인의 고통을 덜고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는 전통은 우리 불교가 지녀온 보배로운 유산이다.

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포교 행사도 눈길을 끈다. 총무원장배 골프대회와 파크골프 대회는 불교가 특정 세대나 한정된 신행 방식에 머물지 않고, 변화된 사회 환경과 생활 문화를 적극 수용하려는 실험이다.

종단과 교구, 지역 사회를 잇는 가교로서 신도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국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어려움을 겪는 오늘, 불자들의 실천과 연대는 국민 통합과 행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다. 이번 70주년 법석이 한국불교 중흥을 이끄는 불자 대연대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9월 3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9월 3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9월 3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9월 3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메쉬 어싱(접지) 수행화

2025 신상출시

자연과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 지금 바로 느껴보세요!

특징 1 **뛰어난 통기성의 메쉬 소재** – 발이 숨 쉬는 듯한 쾌적함
특징 2 **맨발에 가까운 편안함** – 놀랍도록 가볍고 유연한 착화감
특징 3 **자연 통풍 구조** – 쾌적함을 극대화하는 설계
특징 4 **세련된 디자인** – 그레이 색상과 다크 그레이 솔의 조화



특별혜택 지금 구매하시면,
정가 80,000원 ⇒ **특별 할인가 65,000원**
어싱 효과를 더욱 높여줄 '어싱 양말'을 사은품으로 함께 드립니다!
(사이즈 : 225mm~280mm, 색상 : 미들 그레이)

하루 종일 답답한 신발 속에 갇혀 있던 당신의 발을 해방하세요.

'메쉬 어싱 수행화'는 맨발로 걷는 듯한 편안함을 선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발을 감싸는 부드러운 메쉬 소재는 뛰어난 통기성으로 언제나 쾌적함을 유지해주며,
놀랍도록 가벼운 무게는 당신의 발걸음을 더욱 자유롭게 합니다.
땅과 나를 연결하는 '어싱(Earthing)' 기술로, 걷는 내내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1 벨크로 타입으로 편리하게 신고 벗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 맨발로 걷는 느낌을 최대한 주는 3mm의 탄력있는 밑창으로 발 건강을 향상 시킵니다.
3 어싱 신발에는 가죽 인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발 감각에 익숙치 않은 분을 위한 것이니 필요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45,000원 (무료배송)
사계절용(생활방수) ※ 사은품 : 어싱 양말



100% 핸드메이드 연꽃 복전함

장인의 손길
복을 담는 그릇

청정한 연꽃의 기운과
복을 모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오동나무 원목 – 고급스러운 질감, 내구성 뛰어남
우레탄 금분 칠 – 오래도록 변색 없이 유지
복전함 & 박지문 양각 – 복을 모으고 지키는 의미의 상징
비밀 출금 구조 – 외부에서 절대 열 수 없음, 구입자에게만 안내
전용 출금 도구 제공 – 사용 편의성과 안전성 제공

대형 (66cm×56cm×56cm) ⇒ 2,600,000원
중형 (56cm×46cm×46cm) ⇒ 2,300,000원
소형 (45cm 출시예정) ⇒ 1,900,000원


복 전 함 설치사례 부산 관음사



'박지문(博地門)' 글씨 양각 새김



돈 꺼내는 도구

맷돌의 미학, 커피의 철학

밀스톤 맷돌 커피 그라인더
Millstone

불교박람회를 핫하게 만든 맷돌커피

수동 압착식 원두 분쇄, 고흥석·오석이 빚어낸 원형의 미학과 기능성



~~정가 1,800,000~~ ⇒ 할인가 1,400,000
특판 보급가
~~정가 2,000,000~~ ⇒ 할인가 1,600,000

- **고흥석** 원석 : 약 13.1kg
- **오 석** 원석 : 약 14.1kg
- 크기 : 헤드 지름 16cm×받침 지름 26cm×높이 27cm
- 수동 회전 압착 분쇄 방식
- 반영구적 내구성 – 최고급 수공예품
- **국내 기술 특허 및 국제 기술 특허 등록**



핸드드립 애호가와 홈카페 유저를 위한
'한 잔의 철학'을 담은 맷돌 그라인더

패키지 구성품
맷돌 본체, 커피 수납용 컵, 전용 브러시, 맷돌 손잡이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